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0.09+10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0년 9월 1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 Story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아시아 최고의 명품국제자유도시 건설
6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으로 차별화 꾀할 것

머릿글 조창현 정부혁신연구소 소장

9·10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김동녕 한세YES24홀딩스 회장
-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 기획특집 제28회 제주 CEO섬머포럼 지상중계
- 기초강연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세대공감좌담 공병호, 윤은기
- 가족특강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 창조경영특강 표현명 KT 사장
- 경영특강 이희범 STX에너지 회장
- 경영특강 류병덕 물고기마을 회장
- 리더십대담 이어령, 윤병철
- 경제대토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외
- 인문학콘서트 I 박태현 서울대 교수
- 인문학콘서트 II 박희숙 서양화가
- 클로징 리마크 조순 전 경제부총리

회원 & 연구원소식

Special Focus 2010 상하이 엑스포 연수단

명사초청특강 김동수 두폰 아시아태평양 고문

발행인편지

전영기칼럼





www.nkgc.co.kr

농협중앙회 홍삼대표브랜드

NH 농업

NH한삼인은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순수 민족 자본 회사입니다.



♪ powerful day ♪
Hansamin day

이중년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한삼인을 먹습니다!



NH 한삼인

가맹점 모집 1577-6345 고객 상담실 080-346-3489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일반적으로 발전은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더 진전된 수준의 에너지, 능률성, 생산성, 창조성, 성숙성, 기쁨, 성취, 삶의 질, 행복 등을 의미하고, 사회발전이란 한 사회의 구조와 체제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그 사회의 목표와 목적을 더 잘 구현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의 발전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며, 누가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전통적으로 한 사회의 발전목표와 목적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명맥 속에서 혼존하는 그 사회의 가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사회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도 반목과 갈등, 대치와 대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오래 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주요한 우리사회의 공통된 발전목표와 목적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까닭이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어느 한 쪽이 한국사회발전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그 사회는 일시적으로 발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얼마가지 않아서 그 사회의 비능률성과 비생산성이 드러날 것이며, 그 사회는 결코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

정부란 '강 건너 불'을 구경하는 집단이 결코 아니다. 불을 끄는 책무가 정부에게 있듯이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흔히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능력이 없을 경우이다. 따라서 먼저 정부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역량이 비정부 분야에 비해서 뒤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의 전문분야 별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부단히 훈련을 시켜야만 가능하다.

둘째는 정부에게 신뢰가 없을 경우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급하다. 신뢰란 은행의 신용처럼 오랜 거래를 통해

서 축적되는 것인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 신뢰의 근본은 정부의 투명성이요 공정성이다. 아직도 국제평가기관에서의 한국국가경쟁력은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세계 50위를 넘지 못한다. 이것은 비단 행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정부가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수시 점검해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잘 굴러가는 분야에서는 손을 떼고 인력과 재원을 더 많이 요구하는 새롭고 확대되는 분야(노인, 건강, 유아, 환경, 식품 및 의약품, 치안 등)에 정부의 자원과 기능을 다시 배치하는 정부재발명(reinventing government)이 시급하다. 그러지 않아도 날로 경색되어가는 제한된 정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농경사회나 산업화사회 초기의 정부구도를 가지고서 21세기를 운영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발전에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김재미**



● 조창현 소장

1935년 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행정대학원장,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지냈고, 명예교수에 이어 현재 석좌교수 및 정부혁신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무엇이 한국을 정상으로 달리게 하는가?

제1660회 9월 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시형 세로토닌코리아 원장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금년 11월이면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전 세계 주요 20개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산업발달 정도, 인지도 등을 따졌을 때 실제 한국의 위상은 G10으로 평가받아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한국인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수한 민족이다. 세계 정상을 다투는 스포츠 스타들과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문화계 인사들이 많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 것도 남지 않은 폐허 더미 위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는가 하면,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국인의 우수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체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기에 이처럼 무시무시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일까? 한국인의 우수성은 먼저 우뇌형 기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뇌는 이미지적, 감성적, 무규범적 사고를 담당한다. 우뇌가 발달하면 창조적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감정에 취해 움직이게 된다. 앞으로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과격한 열정보다는 차분한 열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분야에서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시형 박사를 초빙하여 한국인의 우수성을 꾸준히 개발하고, 한국형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경북대 의과대학 졸업 | 美 예일대 신경정신과 박사 | 경북대 신경정신과 박사 | 경북대 의대 정신과 교수 | 서울대 의대 외래교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 강북삼성병원 원장 |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 한국정신의학연구재단 이사장 | 한국청소년정신의학회 회장 |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 힐리언스 선마을 총장

〈저서〉 배짱으로 삽시다, 세상 바꿔 보기, 이시형이 만난 프루이트, 우뇌가 희망이다, 세로토닌하라, 행복한 독종 외

■ 합작기업으로서의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요인과 미래전략

제1661회 9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벨뷰룸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지난 4월,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사업, 수처리사업, 태양광소재사업, 2차전지 핵심소재 진출, IT사업 및 필름사업 등 5대 신성장전략을 담은 '비전2020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0년까지 2조 3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일본 도레이와 새한구 제일합섬은 7대 3의 비율로 출자하여 '도레이새한'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회사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비전선포식과 함께 '첨단소재로 세계 톱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도레이첨단소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일본 도레이는 지난 1965년 한국나일론에 나일론 기술을 공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7년간 꾸준히 우리나라에 기술을 이전하고 자본을 투자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세계 화학섬유업체 중 기술력과 영업력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는 녹색경영대상을 매해 수상하면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도레이첨단소재는 대한민국 화학소재 산업의 새로운 역사와 세계 화학소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99년부터 도레이첨단소재의 역사와 성공의 중심에 서있는 이영관 회장을 초빙하여 도레이와 새한의 합작으로부터 화학소재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업의 이념과 추구가치, 그리고 기업문화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해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홍익대 화학공학과 졸업 | 고려대 국제경영학 석사 | 1973년 제일합섬 입사, 기획담당 이사, 구미사업장 상무 | 새한 구미사업장 정(전무), 소재그룹정(전무), 부사장 | 도레이새한 사장 | 일본 도레이 한국대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명예회장

〈상훈〉 대한민국 에너지대상 최고경영자상,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남세자의 날 대통령표창, 녹색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포브스 경영품질대상 외

■ 지도자의 건강경영

제1662회 9월 1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벨뷰룸
전세일 차의과학대 대체의학대학원 원장

인간의 본능 중에서 '살겠다'라는 장수욕망이 가장 강하다.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경우 인간의 자연수명은 120세에 이른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자연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부여받은 생명을 인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어진 120년에서 여러 해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전세일 원장은 건강을 잃고 있지만 아직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았거나, 질병은 치료했지만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질병과 건강의 회색지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회색지대에 있으면 면역력 등 인체의 안티에이징 기능이 떨어져 노화가 빨리 온다고 주장한다. 회색지대는 이미 발생한 질병 치료에 치중하는 서양의학만으로는 정확히 잡아내기 힘들며, 양·한방 협진에 대체의학까지 적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을 모두 아울러서 볼 때 건강한 비결로서 지켜야 할 5가지가 있는데, 이를 '건강 5정법(五正法)'이라 부른다. 정식(正食), 정동(正動), 정심(正心), 정면(正眠), 정식(正息)만 제대로 하면 120세까지의 건강경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제도권 의료계에서도 관찰과 연구의 길을 활짝 열어 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 대체의학의 최고 권위자인 전세일 원장을 초빙하여 자연수명에 근접할 수 있는 건강경영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의과대 졸업 |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 국제침술학회 회장 | 연세대 의대 재활병원 원장 |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 한국대체의학회 회장 | 국제재활의학회(ISPRM) 부회장 |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원장 | 국제생명정보학회(ISLIS) 부회장 | 세계자연치유의학연맹 총재 | 한국통합의학학회 회장 | 차바이오메디컬센터 원장

〈저서〉 한방으로 갈까 양방으로 갈까, 제대로 건강법, 내 몸의 의사, 자연치유시리즈 외

■ 주류없이 흘러가는 한국사회의 수수께끼

제1663회 9월 3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조우석 문화칼럼니스트

2000년대 한국사회의 특징은 한 마디로 사회통합의 위기다. 그런 현상은 과도한 이념 분쟁과 노사분규, 부(富)에 대한 적대감과 반기업 정서, 공권력에 대한 무시 내지 부정, 그리고 반문화와 몰치성주의의 팽배 등의 흉한 모습으로 우리사회를 괴롭힌다. 네티즌의 황포도 두렵다. 그들은 인류사의 첫 아나키스트 프루동의 말대로 '재산은 도둑질이다'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게 한국사회의 일상이자, 상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모든 현상의 구조적 핵심에는 안정적인 주류사회가 없거나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흔치 않게 국가 만들기에 성공해 중강국가(middle power)로 자리 잡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수수께끼다. 주류란 무엇인가? 무엇이 그것을 형성하는가? 지적 권위를 가진 건강한 미디어, 가치중립적인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사회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핵심세력이다. 즉, 주류란 사회가 굴러가는 데 핵심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의 뼈대인데, 그것 없는 한국사회는 항상적인 위기의 공화국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해방 이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이를 치유할 것인가? 좌파 우파로 편을 나누고 서로를 공격하기 이전에 방향을 잃은 공격성과 사회적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아닌, 사회 모든 분야를 조감할 수 있는 제3의 전략적 영역이라고 말하는 조우석 문화칼럼니스트를 초빙하여 한국사회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강대 철학과 졸업 |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 | 문화일보 복리부 팀장, 문화부 부장 | 중앙일보 출판팀장, 문화전문기자 | 문화평론가 | 중앙일보 '조우석칼럼' 연재

〈상훈〉 서울언론인클럽 '신문칼럼상'

〈저서〉 박정희 한국의 탄생, 책의 제목 책의 언어, 배추가 돌아왔다, 한국사진가론, 미래의 저널리스트에게(역) Are You Happy? 행복의 유혹(역) 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실상과 미래성장 전망

제1664회 10월 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달드룸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08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해 마련된 조직인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이전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과 더불어서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의장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리더십과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 향후 국제경제 질서 형성에 우리나라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의 효과를 더해 국경 향상에 큰 득으로 작용될 것이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며 국격을 논하기에 앞서, 97년 IMF사태를 통해 국제신용평가기관 등 국제사회의 신뢰성이 물적·인적 자원에 이른 '제3의 자본'이라는 것을 주지한 것이 사실이지만 괄목한 성과는 도출하지 못한 것 같다. 사회적 자본지수인 신뢰가 곧 경제자본 형성의 근간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종합적인 사회적 자본지수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에서 세계 10위권을 논하는 한국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연세대 정갑영 교수를 초빙하여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본 한국경제의 실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극장정치의 함정에 빠진 MB정부와 한국정치의 본질

제1665회 10월 1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달드룸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은 그 정부의 정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임기 반환점에 가면 예외 없이 민의 역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MB정부도 이전 대통령들이 빠져들었던 함정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민주화 이후 정치의 '본질'이 변했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 기획하고 연출할 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하는 것은 '극장정치'에 불과하다. 극장정치에서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구경만 하는 관객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소통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링컨이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노예해방 때문이 아니라 우선적인 과제로 분열의 위기에 처한 연방을 유지하는데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링컨은 남북의 경계선에 위치한 (주)들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연방도 유지되고 노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정치,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의 전문가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를 초빙하여 한국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MB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펜실베이니아대 석사 | 美 코넬대 경제학 박사 | 코넬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연세대 경제연구소 소장, 부총장 | 삼성경제연구소 석좌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이사 | 동북아경제학회 회장 | (사)정보통신포럼 회장 | (재)자유기업원 이사장

<상훈> 연세학술상,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상, 전경련 자유경제 출판문화상 및 시장경제대상 외

<저서> 카론의 동전 한 닢, 열보다 더 큰 이혼, 정갑영 교수의 알콩달콩 경제학, 데메테르의 지혜로운 선택 외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美 UC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 UC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교수 | 도교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장, 기획실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한민족복지재단 법인이사 | 한민족 어린이들이 네트워크 공동대표

<저서> 분단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공),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공역),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공), 일본은 회생하는가(공), 전후한일관계의 전개(공) 외

■ 행복한 사회의 조건

제1666회 10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21세기 현대인들은 기술혁명 및 글로벌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다양한 범죄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학계 및 관련기관은 학제간 공동연구 및 산학연의 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제 형사사법분야의 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범죄 및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 및 기관내부 연구인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대학·민간영역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연구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다. 둘째, 범죄통계 DB구축과 지속적인 조사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형사정책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형사정책적 기초연구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셋째, 유엔 및 외국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공동학술회의 개최, 상호인적교류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다. 넷째,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에 따른 혁신을 통해 연구품질의 수월성 확보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초빙하여 위험한 범죄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법학과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 석사 | 독일 괴팅겐대 법학 박사 |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 미국 Wisconsin Law School |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사법, 입법, 행정고등고시위원

〈저서〉 형법총론(제8판), 형법각론(제8판), 형법각의, 형사정책(공저, 제9판), 독일형법사

■ 어제보다 더 나은 한걸음, 도전의 43년

제1667회 10월 28일(목) 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홀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GE와 토요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도 한 순간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급속히 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영환경이다. 더 이상 영원한 1등도 없으며, 어떠한 기업도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 및 육성해 올해 매출 2조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일진은 여러 면에서 국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진은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몬드, 일진디스플레이 등 4개의 상장사와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는 부품·소재 전문 기업이다.

1968년, 일진은 전기 송·배전 관련 제품개발로 사업을 시작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전자제품용 전해동박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환경, 에너지, RFID사업에서 금융, 방송, 바이오 분야까지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대표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일진의 허진규 회장을 초빙하여 지난 40여 년간 부품·소재라는 한 분야에서 묵묵히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온 경영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원 AMP과정 수료 | 전북대 명예경영학 박사 | 1968년 일진전기공업(주) 창업 | 전경련 이사 |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 | 한국-코스타리카 친선협회 초대회장 |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상훈〉 석탑산업훈장, 한국무역협회 무역인 대상, 한국을 일꾼 엔지니어 60인 선정, 대한민국 기술대상 금탑산업훈장



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함께하는
산개발경영자연구회

사진 · 정용달 팀장

미래를 위한 공정의 리더십

나는 공정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스물여덟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했고, 수출회사를 상당히 잘 경영했다. 그러다 조금씩 적자가 누적되던 차에 1979년 오일쇼크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3년 뒤에 다시 한세실업으로 재기를 시작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 희망, 공정이라는 말을 잃어버렸다면 오늘의 위치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불황 후를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

불황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 금융 불안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했고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불황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이지만 ‘어떻게 불황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불황이 끝난 다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불황을 겪으면서 그저 불황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했고 대성공을 이루었다. 오일쇼크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경공업경제였다. 섬유산업을 비롯한 가발, 합판, 신발 등이 경공업 산업인데, 7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들을 압박하여 조선소, 자동차 공장, 비료 공장, 선박 공장을 짓고, 발전설비도 만들게 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오일쇼크 이전까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돈 먹는 하마였다.

그러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감

행, 80년대부터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의 중화학 공업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이다. 전자제품, 조선소, 엔진, 플랜트, 담수화 설비 등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 또 전 세계를 누비는 중화학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일자리가 생기고 본다.

오일쇼크라는 커다란 부담, 세계적인 큰 재앙을 거치면서 몰락한 나라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도약했다. 그래서인지 지금을 대한민국은 국운 융성기라고 이야기한다.

IMF 위기에도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국민적인 단합을 꾀하고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입안했다. 정부에서 돈을 풀고 펀드를 만들고 은행을 독려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다. 그 당시는 병역 특례가 생겨 대학에서 똑똑한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가서 근무하기도 했다. 물론 수많은 모럴해저드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으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한국의 IT산업이 일어난 것이다.

작년에 한국야후의 대표를 지냈던 분을 YES24의 CEO로 영입했다. 그 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지만 야후 자체는 맥을 못 추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 파란닷컴에 눌러 꼼짝도 못 한다.

전자상거래는 아마존과 이베이라는 양대 산맥이 있다. 그 두 곳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일본시장에는 아마존이 진출해서 1위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마존을 들어보았는가? 조그맣게 사이트를 열어봤지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베이가 대단하지만 직접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옥션이라는 회사를 사고 G마켓이라는 회사를 샀다. 옥션을 사는데 1조 원이 들었다.

휴대폰의 경우 우리를 당할 나라가 별로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97년도 당시 IMF라는 위기를 넘기면서 새롭게 우리가 변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아마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IT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위기를 통해서 한 걸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차원 더 뛰어넘었다. 사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대한민국 전체가 그 위기를 넘어서면서 더 크게, 더 높게 새로운 분야로 도약을 할 수 있었다.

적자기업 YES24, 7~8년 만에 4.5배 성장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생산기지를 단순화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과라 등 4개 나라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다만 샘플은 서울에서 만든다. 작년 1년 동안 만든 샘플이 24만 장에 이른다. 베트남에 한세 공장이 2개 있는데 직원이 모두 1만 5000명 정도 된다. 1년에 한 번씩 한세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3만 명 규모의 체육대회를 여는 아주 큰 행사가 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5개 고등학교에 21명분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현지봉사단으로 보내기도 한다.

2003년 5월에 YES24를 인수했다. 당시 IMF가 끝난 상황에서 수출기업들 중 달러 환율이 올라서 돈을 버는 곳들이 많았다. 그런 기업들은 당시 건물을 많이 사들이는 추세였다. 우리 회사도 돈을 벌었고 사옥은 없었지만 건물을 사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YES24를 인수하게 되었다. YES24의 당시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였는데, 창업한지 5년이 지났지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적자 누적 상태의 500원 짜리 주식을 5000원을 주고 샀다. 주변에서는 “적자가 계속되는 기업을 10배, 15배나 더 주고 샀으니까 이제 한세는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믿는 바가 있어서 모험을 한 것이다. 그리고 2003년 인수할 때와 비교해서 7~8년 사이에 회사는 4.5배 정도 성장을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상품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

금년 3월 말에는 베트남에서 YES24 VINA라는 사이트를 하나 열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들이 책을 팔지 못하게 해서 한국의 패션, 화장품

등을 팔고 있다. 요즘은 사이트 방문자 수가 하루에 적으면 5000명, 많으면 7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은 돼야 회사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 같다. 직원들에게 항상 “참아야 돼. 참아야 이겨”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11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글로벌하게 팔아본 경험이 사실상 없다. 대한민국이 너무 좁지 않은가?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이라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산업 5대 육성책 중 하나로 의료관광 분야를 선정했다. 싱가포르, 이 작은 나라에 의료관광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1년에 50만 명이다. 요즘의 제조업은 워낙 자동화가 되어 고용 없는 성장이 큰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어야 하는데,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몇 가지 포인트 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다.

또 한 가지는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유학생이 100만 명 정도만 돼도 지방대학이 살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주면 된다. 100만 명 유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외식하고, 우리 기업의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 이것이 바로 수출이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한국이 좀 더 달라진 나라, 그것도 좀 더 국제화된, 글로벌화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가 넘으면서 싫던 좋던 간에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좀 더 능동적으로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일으키는 것이 이번 불황을 이겨내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김재민**

제165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첨단국가를 향한 혁신

1970~80년대 아시아에는 '기러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러기 떼는 맨 앞의 선두 기러기가 나머지를 인도해서 날아간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활처럼 생긴 일본 열도가 선두에 서서 아시아의 지도국가로서 산업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기러기 이론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도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근본적인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일본과 저임금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호두까기 속의 호두' 신세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긴 것이었고, 아시아에서 산업화가 가장 빨랐던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당시 나는 이것을 '은폐된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한국경제에는 튼튼한 펀더멘탈이라는 잠재력과 내부적 노력으로는 어찌지 못할 구조적 모순이 공존했는데, 내부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한 번은 외부충격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뒤흔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 고통을 겪었기에 한국은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사진 · 정용달 팀장

팍스시니카시대 한국 첨단국가 꿈꿔야

지금 시대는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서 G2시대, 즉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차이메리카(Chimerica)를 거쳐 중국이 주도하는 팍스시니카(Pax Sinica)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GDP는 2020년 중반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이끄는 성장의 기차에 탈 것인지,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호두까기 속의 호두가 될 것인지의 기로에서 슬기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경기규칙에서 새로운 경기규칙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을 시사한다. 천안함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내외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과학과 사실을 중시하는 미국 규칙과 교섭과 맥락을 중시하는 중국 규칙의 미묘한 차이도 잘 읽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산업사회가 아니라 지식정보사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일류국가'가 아닌 '첨단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차별화를 확보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재무성 관리에게 “한국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리지 않겠는가?”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냉정한 답변을 들었다. 실제로 우리는 첨단기술도, 특수제품도, 특별자원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의 지식, 기술, 문화를 가지고 세계와 승부를 해야 한다.

2015년 스마트워크 종사자 30%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지식정보사회의 국가전략으로 '스마트코리



아' 건설을 정했다. 경제의 세 주체인 국민, 정부, 기업이 모두 스마트한 국민생활과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경제를 이룸으로써 첨단국가를 향한 혁신을 이루자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일하기(Work Hard)'에서 '똑똑하게 일하기(Work Smart)'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스마트워크는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실현한다. 개인적인 일이 협업 위주의 일이 되고, 조직도 기존 산업사회를 대표하던 관료제에서 협업 위주가 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일로 바뀌게 된다. 개인화된 정보와 자원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공유 자원으로 바뀐다. 이제는 사무실에서 내 PC라는 것을 고집할 수 없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스마트워크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진다. 이제는 사람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체제가 된다.

스마트워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네덜란드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49%를 원격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근교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사이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세웠다. 이로 인해 센터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부도심이 형성됐으며, 사람들이 직업과 업종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사회통합센터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된다.

미국은 2016년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자가 43.4%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5월, 미국 상원은 정보통신기반 원격근무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이미 취업자의 15.3%가 ICT에 기반한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일본도 2010년까지 총무성 주도로 20%까지 원격근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도 늦었지만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가려고 한다. 우리는 2015년까지 전체 취업자의 30%가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센터를 정부 주도로 50곳, 민간 450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는 현재 스마트워크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1%도 안 되는데, 늦은 만큼 정부가 먼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의 일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방식을 바꾼 뒤 기술을 도입해야 스마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그냥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법규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서구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했는데, 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Human Development CEO Forum

후원사업이 성공하면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리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너무 특정해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업무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정부의 경우 대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과정을 세분화하고, 누가 일을 시작하고 끝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매길 수 있는 업무과정의 혁신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알고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매뉴얼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무평가, 인사고과를 하면서 대면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맞지 않다. 앞으로는 대면중심의 업무평가를 철저한 성과 위주로 바꾸는 합리적인 인사고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스마트워크 도입에 유리

우리나라는 스마트워크 도입은 늦었지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수도권 출근 시간이 평균 76분이다. 서울은 1인당 40분, 경기도 거주자는 평균 1시간 16분이다. 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짧은 출퇴근 시간이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 제일이다.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면에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를 전략적인 자릿대로 삼아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산성 향상이다. 브리티시텔레콤(BT)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면서 1조 원의 비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은 20% 증가했다. 또 출산·육아휴직 이후 여직원들의 업무 복귀율이 42%에서 99%까지 급증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스마트워크로 인해 고용율이 20% 상승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650명에서 1.96명으로 상승하는 등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출산율이 1.1명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에도 스마트워크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도 탄소 배출에 획기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BT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한국처럼 정보통신 인프라가 발전한 나라에서 왜 아직도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하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것을 구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1인 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를 비롯한 대기업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감성과 지식의 결합으로 창조적 인재육성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은 결국 창조성을 어떻게 감성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느낌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감성과 지식을 엮어서 이것을 창조적인 역량으로 만들어 21세기 창조적인 인재를 기쁨으로써 모방과 통제에 묶인 젊은 인재들을 네트워크와 상상력,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창조적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 래야만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사회에서 세계 최첨단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코리아라는 것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해 세계의 최첨단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써 창조성과 감성과 제도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과 이것에 많은 제약을 만들어내는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KHDI**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아시아 최고의 명품국제자유도시 건설
6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으로
차별화 꾀할 것

사진 · 오경근 원장

“제주는 달라야 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고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게 JDC의 사명입니다. 제주 개발을 위한 6대 핵심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제주는 자연과 환경이 보존되는 품격 높은 도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이 어우러지는 도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도시, 즉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제주와 서울, 그리고 해외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변정일 이사장을 지난 19일, JDC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인터뷰에 임하는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변 이사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줄곧 ‘차별화’를 강조했다. 제주만의 장점을 살려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삼다경영(三多經營)’을 강조한다. 조직원들이 도전, 열정, 창의성을 가질 때 제주의 꿈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동참하는 도민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변화를 맞이하길 바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취임 15개월, 세계적인 관광·비즈니스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JDC 변정일 이사장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현황과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변정일 이사장 : 한국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는 2002년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세계적인 관광지 및 비즈니스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JDC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100% 투자해 설립한 국가공기업입니다. 즉, JDC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지요.

JDC가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JDC는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 미항사업 등 6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이제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정일 이사장 : 지난해 5월 취임했으니 1년 3개월이 지났네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벌써 임기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지낸 날들이었죠. 그래도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지난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고, 세계적인 명문 사학인 영국의 노



변정일 이사장은...

1942년 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 건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제10,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5대 의정 활동 중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2000년부터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09년 5월 JDC 이사장에 취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JDC는 캐나다 브랭섬 홀과 아시아 국제학교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

스런던 칼리지잇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 NLCS), 캐나다의 브랭섬 홀(Branksome Hall)과 MOA를 체결해 제주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또 미국의 세인트 알반스 스쿨(St. Albans School)과도 MOU를 체결했죠.

우리나라 IT·BT산업의 요람이 될 첨단과학기술단지 는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부지조성공사와 지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항공우주박물관이 곧 건축공사를 착공할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의 스미소니언재단과 MOU를 체결해 여러 가지 협조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 최고의 항공우주박



브랭섬 홀과의 본계약 체결 브리핑을 하고 있는 변정일 이사장

물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서귀포미항사업 중의 하나인 새연교(새섬 연결 다리)는 9개월 만에 100만명이 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녀 갈 만큼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0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JDC가 발행하는 사보 <제주의 꿈>이 2010년도 국제비즈니스 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 IBA)에서 대상과 본상을 함께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JDC는 제주의 명품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국제자유도시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추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제주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정일 이사장: 흔히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홍가포르'라는 말까지 만든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가 돼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주는 달라야 합니다. 제주는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품격 높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원활한 국제자유도시가 돼야죠.

제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청정한 자연이 유지 보존되는, 그래서 편리하고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는 인구가 1천200만 명으로 제주도의 21배에 이르지만 면적은 두 도시를 합쳐도 제주보다 약간 작을 만큼 밀집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주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어 상대적으로 빈공간이 많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멋진 밀그림을 그릴 수 있고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합니다. 제주의 또 다른 장점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서울, 베이징, 동경 등 인구 1천만 이상 도시를 5개나 배후 시장으로 거느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품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JDC가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변정일 이사장: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유치되는 학교들은 본국에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명문사립학교들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 NLCS의 제주학교인 NLCS-Jeju는 이미 건축공사 착공식을 가지고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죠. 캐나다의 브랭섬 홀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미국의 세인트 알반스 스쿨과는 MOA를 체결할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9월 NLCS-Jeju와 공립국제학교 2개교 개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12개교를 유치해 학생 수 9천 명의 영어교육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左. 내년 9월개교 예정인 NLCS-Jeju 착공식 발파장면. 右. 첨단과학기술단지 준공식에서 인사말 하는 변정일 이사장

1850년 설립돼 16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NLCS는 2006년 '올해의 학교' (더 타임즈), 2008년 '최고의 학교' (파이낸셜 타임스)로 선정되었으며, 영국 내 국제학위(IB)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 중 4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최근 5년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학에 한해 평균 진학률이 영국 전체 5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2005년 전 세계 IB시험 만점자 50명 중 5명이 NLCS 학생이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영국 이튼 칼리지와 해로우 스쿨을 능가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유치되는 학교는 한국화 된 국제학교가 아닌 국내 최초로 오랜 기간 검증된 본교 교육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국제학교로 운영됩니다. 교육과정도 정규학교 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어요.

올해 말쯤에는 학생입학 모집요강 확정과 함께 교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내년 9월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개 국가의 최고 명문 사립학교가 모두 진출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의 기반이 완성됩니다.

지난 3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준공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기업이 입주했는지,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변정일 이사장: 첨단과학기술단지는 6대 핵심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원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주)이스트소프트, (주)SK에너지, 카이스트 EMDEC,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40개 업체로 이미 많은 기업이 지원시설에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

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본사 사옥 건축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JDC가 입주기업에 주는 혜택은 세제감면 등의 직접 인센티브와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인센티브 등 두 가지입니다. 직접 인센티브로는 법인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그 후 2년간은 50%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면제되죠.

간접적으로는 입주기업들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교육훈련, 인허가, 특허출원 등을 돕고 있으며, 첨단단지에 구축되어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디어는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창업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창업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기업의 연구 및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집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으로 제주도의 정주인구 증가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비즈니스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개방에 대한 입장과 향후 이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변정일 이사장: 헬스케어타운은 청정한 자연과 의료, 요양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건강테마타운입니다. 이곳에는 첨단 건강검진센터와 세계적 수준의 특화된 전문병원은 물론 노화예방연구소, 신약연구소 등의 의료 연구단지도 들어서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요양이 가능한 룡팀케어 시설과 숙박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변정일 이사장과 정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JDC는 서울대 의대, 한의학연구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살아남을 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첨단의료장비,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자본의 투입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헬스케어사업 및 의료관광을 향후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한정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허용으로 제주가 국가차원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주헬스케어타운내에 한정돼 적용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지금처럼 유지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이 많으실텐데요,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또 개선돼야 할 점은 어떤 것일까요.

변정일 이사장: JDC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명품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이죠. 외국에 나가보면 각국이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보다 차별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냉정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이 투자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잠재력을 보여줘야 하고 사업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민들도 국내외 자본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긴 안목과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죠. 우리만의 문화와 사고방식, 우리만의 가치로는 명품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한 발 앞서 나갈 때 우리가 꿈꾸는 명품국제자유도시는 완성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명품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삼대(三多)’의 경영철학을 강조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변정일 이사장: ‘삼대경영’이라는 것은 도전, 열정, 창의의 세 가지로 多도전, 多열정, 多창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고품격을 지향하는 불굴의 도전정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창의성입니다.

저를 포함해 부사장과 일반직원들 모두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제주도를 품격 높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도민들의 국제자유도시 마인드 함양을 위한 'JDC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저희 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정일 이사장 : JDC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6대 핵심프로젝트 개발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함께 지역주민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라는 국제자유도시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투자자들도 쉽게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어요. 이를 돕기 위한 'JDC 글로벌아카데미'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념과 마인드 함양, 열린 사고를 통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간개발연구원과 함께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확립한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JDC의 업무는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정일 이사장 : JDC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소외계층 지원, 녹색제주 조성, 문화·예술 증진 등 3대 사회공헌 핵심과제를 통해 도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저신용층 경제자립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과의 협력, 다문화가정 지원, 의치보철 지원 등과 녹색제주 조성을 위한 가파도 푸른 숲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글로벌아카데미 외에 대학생 해외인턴십, 초·중생 영어캠프 등 다양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JDC 임직원 모두가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사랑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JDC면세점 사업의 규모와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변정일 이사장 : JDC면세점은 제주도 여행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면세점으로 2002년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개점한 이후 매년 10%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270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죠. 면세점 수익금은 설립 취지에 맞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 개발사업비, 홍보마케팅비 등의 재원으로 전액 제주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JDC가 추진하는 6대 핵심프로젝트의 사업 재원은 JDC면세점의 수익금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대부분은 민자유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은 5%에도 미치지 못하죠. 결국 정부나 국민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JDC가 직접 벌여 쓰거나 국내의 자본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꿈꾸는 미래의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변정일 이사장 : 제가 꿈꾸고 희망하는 제주는 쾌적한 자연과 환경이 유지되고, 고품격의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이 어우러지는 명품국제자유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사업들이 당장의 수지타산, 수익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보다 원대한 목표로써 격조 있는 영어교육도시, 품격 높은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또한 제주를 아시아 최고로 만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희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정일 이사장 :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된 1975년도는 무엇보다 먹고사는 데 급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일찌감치 인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원을 설립해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장만기 회장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연구원의 신념이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이든 조직이든 성공의 열쇠는 사람중심의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 35년간 이끌어온 CEO 조찬세미나도 계속 이어져야 하겠지만 글로벌시대의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의 꾸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1. 2010 제주 CEO 섬머포럼 단체사진
2. 경제대토론 후 참석자들과 함께
- 3,4. 7월 28일 환영만찬에 참석한 참가자들
5. 변정일 JDC 이사장의 환영사
6. 우근민 제주도시사의 환영만찬 축사
7. 7월 28일 개막한 2010 제주CEO 섬머포럼
8. 2010 제주 CEO 섬머포럼 골프대회 시상식
9.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윤계섭 회장
10.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 11,12,13. 2010 제주 CEO 섬머포럼 골프대회
- 14,15,16. 참가자 모습



기획특집
2010 제주 CEO 섬머포럼 지상중계

CEO, 지혜의 바다에서 나를 만나다



올해로 28회 짝을 맞은 '제주 CEO 섬머포럼'이 7월 28일부터 31일 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0 제주 CEO 섬머포럼은 35년간 인간 중심의 조직문화를 목표로 경영자, 공무원, 시민들을 교육해 온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과 23년간 경제금융 대표 기업들을 이끌어 온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윤계섭), 대한민국 대표 경제신문인 한국경제신문(사장 신상민)이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 동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항해를 위한 출발선에서 경영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감성과 문화를 통해 창의경영을 충전하며, 100년 기업으로 가는 희망의 항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모신 가운데 "CEO, 지혜의 바다에서 나를 만나다"를 대주제로 정했습니다.

포럼에는 조순 前 경제부총리,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이희범 STX에너지 회장, 현오석 KDI 원장, 표현명 KT 사장, 김수룡 도이치은행그룹 한국회장, 류병덕 물고기마을 회장 등이 연사로 참여해 창조경영과 미래경영, 리더십을 테마로 새로운 100년의 희망경제를 설계하고 리더의 지혜를 나눔으로써 행복기업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박태현 서울대 교수, 박희숙 서양화가, 유형중 음악칼럼니스트 등의 특강을 통해 경영자들과 그 가족들의 문화적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본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토론의 장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2010 제주 CEO 섬머포럼'의 주요 세미나를 기획특집으로 지상중계합니다.

글 · 정용달 팀장 / 사진 · 서봉석, 정용달 팀장





1,2,4,7,9,10,12. 참가자 모습
3,6,8,11. 제주 올레길 걷기 참가자들
5. 참가자 자녀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조강연

한국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

최근 <블랙 스완>이라는 책이 화제다. 18세기 호주에서 처음으로 검은 색 백조가 태어났다. 이후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비유해서 블랙 스완이라는 말을 쓴다. 최근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두바이 사태, 남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세계경제나 금융에 있어 블랙 스완과 같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



10년 주기로 위기 발생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위기는 평균 10년에 한 번씩은 찾아온다. 위기 중에서도 특히 금융위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금융이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기 때문이다. 지난 위기 중 가장 큰 위기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통해 정상수준의 경제로 되돌리는데 12년이 걸렸다.

이후 1980년도에는 미국의 많은 저축은행들이 도산하면서 위기가 있었고, 1990년도에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다가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위기다.

대공황 때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때의 교훈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예전보다 강화되기도 했다. 이번 금융위기는 터널 끝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세계적인 공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각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확대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2008년 중에만 해도 전 세계 주가가 41% 하락했고, 작년 2월까지 추가로 20% 더 하락했다. 전 세계 금융부실은 4조 달러가 넘는다. GDP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 세계 실업자 수는 3천 400만에 이른다.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및 자산가치의 버블이 가장 큰 이유다. 또 금융회사들의 과다한 영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증가가 원인이다. 그리고 정부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실패가 그 원인이다. 그래서 오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금융개혁과 관련한 것이다.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원인을 꼽으면 모든 위기의 근저에는 탐욕이 있었다. 인간의 탐욕이 커지면 역사적으로 위기가 올 때까지 잘 제어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소위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금융정책 과제

앞으로 세계경제 특히, 금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먼저 세계경제를 이끄는 축이 중국, 인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 옮겨갈 것이다. 2030년이면 아시아 지역의 GDP가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G7 국가의 GDP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시장만능주의가 퇴조하고 당분간 금융규제를 강화해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 분야의 과제는 첫째, G20 정상회의가 우리에게서 굉장한 도전이다.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잘 조율해 나갈 의무가 있다. 둘째, 취약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산업으로서 금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특히 사람 문제가 중요하다.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김재민**

세대공감좌담

젊은 세대,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좌장 : 권영실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 원장〉

최근 기업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30대와 소통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반면 부모님들은 20대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젊은 세대,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윤은기 원장님(이하 윤)과 공병호 소장님(이하 공)을 모시고 신세대와의 소통에 관한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두 분께서 준비한 주제발표를 듣고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윤 롤프 안센이라는 미래학자는 자신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 (Dream Society)>에서 1인당 GDP가 15,000불 이상이 되면 물질적 만족보다 꿈과 감성적인 만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롤프 안센이 말한 Dream Society에 진입했다.

기존 사회에서의 엘리트는 좌뇌형 엘리트였다. 그러나 현재는 감성이 중시되는 즉, 우뇌 발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한국인은 감정적으로 극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극단성은 원활하지 못한 소통의 골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제 엘리트는 좌뇌 뿐만 아닌 우뇌의 개발에도 집중해야 한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보화시대에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을 예견했다.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 비하여 느린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성세대가 빠른 학습자가 되어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글로벌화가 되며 다양화는 가속되고 있다. 다양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갈등과 마찰, 그리고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는 포용력을 기초로 하여 다양성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공 인류를 20~40대와 50~60대 이상으로 구분할 때 전자의 특성을 총 6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데 뛰어나다.
2. 외국어구사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3. 자립심이 부족하며 근성이 부족하다.
4. 정보변별력이 떨어지며 꿈과 현실사이의 격차가 크다.
5. 조직몰입도가 낮으며 자기 주관이 강하지 않아 대세에 편승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6.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전통적인 수직구조에 갈등을 겪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자세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젊은 세대의 특성에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지적투자를 해야 한다.





2.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서 탈피한다.
3.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4.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는 6개월 안에 따라가자. 그 예가 트위터 같은 것이다.

세대격차로 인한 폐해

권 이번에는 공병호 소장께서 소통의 문제로 발생 가능한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윤은기 원장께서는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간략한 대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공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 세대격차가 확대되어 그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 생산성 저하, 업무몰입도 저하, 조직 내의 갈등과 분쟁 확산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소개(introduction)와 자기개방(Self-discloser)은 다르다. 자신의 업적만 밝히면 거부감을 야기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 인간적인 면을 개방하면 쉽게 친해진다. 소통의 폐해로는 사고의 마찰, 스트레스, 행복지수 저하를 일으키는데, 세대 간의 소통 문제는 앞 세대가 먼저 변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세대는 엘리트, 완벽한 사람을 좋아했으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

기성세대가 고쳐야 할 점

권 기성세대 쪽에서는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공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Be Flexible)해야 한다. 사람들은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만 마음을 유연하게 하는 것에 인색하다. 학습에 대한 열의를 가져야 한다. 시대를 이끄는 메가트렌드와 신문명을 배워야 한다.



윤 50~70대의 입장에서는 수직적 사회를 살아왔기에 명령, 지시, 복종에 익숙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수평적인 사회로 재편이 되어기에 우리의 의식도 수평화 되어야 한다. 아들 뻘인 젊은이도 아랫사람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 및 동료로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존재임을 보여야 한다.

젊은 세대를 위한 조언

권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조언이나 메시지를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공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적대적 2분법에 빠지지 말고 생각의 크기, 속도, 순도, 틀을 바꿔야 한다.

윤 자기 분야에서 콘텐츠 생산능력을 가져야 하며 부가가치를 창조하고자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뚜렷한 주관과 일정 기간 동안 집중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KBKIM**

가족특강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나는 지금 행복을 선택한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제압하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 힘, 지식, 그리고 웃음이다.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보면 행복과 웃음을 잃기까지도 한다. 그럴수록 내 삶의 기쁨과 웃음들을 마음껏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 안의 감성을 깨워라

웃음을 찾는 방법으로, 우선 내 안의 감성을 깨워야 한다. 자주 감탄하는 사람은 엔돌핀보다 3000배 더 많은 다이돌핀이 분비된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감탄하면 감탄할 일이 생기게 되니, 감탄하는 연습으로 감성을 깨워보자.

아이들이 많이 웃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들은 어른처럼 옆사람의 눈치는 커녕 고정관념과 걱정이 없다. 우리는 그들처럼 어린 마음과 풍부한 감성을 지니진 않았지만 그들처럼 되려 한다면, 진정한 기쁨과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바보는 속마음과 겉이 같은 사람이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다. 지금의 시대는 감성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시대이다. 웃음이란, 고정관념과 틀을 버리게 하는 탁월한 방법이다. 스트레스, 근심, 삶의 문제들을 버리면 진정한 지혜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한국은 자살률과 이혼율 1위이고, 행복지수는 120위이다.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웃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찾게 하고 삶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 긍정과 성공을 만든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은 생각의 총합으로,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즐겁고 자신감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즐겁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웃음을 운동하자

마음의 거울인 얼굴에는 생각과 마음이 비친다. 웃음은 생각을 바꾸는 특성이 있다. 기쁘고 즐겁거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비쳐지는 웃음을 운동으로 생각해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역지로 웃을 때에는 웃는 감정이 뇌를 자극시켜 우리 몸이 실제 웃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

크게 웃는 것은 윗몸일으키기 25회의 효과를, 10초 동안의 웃음은 노릇기 3분의 효과를 지닌다.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며 웃는 시간은 행복이 오는 시간이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다. 웃음은 자신감을 만들 뿐 아니라 암도 예방한다. 하루 3000여 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자연살해(Natural Killer, NK)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즐겁고 크게 웃을 때 NK세포는 2~3배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크게 웃자.

웃음이 긍정을 낳는다

웃음은 희망이 있다는 긍정을 만들고 긍정은 얼굴에 나타난다. 박수치며 웃고 나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 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 에너지는 뇌세포를 바꾸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한다. 얼굴은 그 사람의 열, 즉 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웃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준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도 바뀌기 시작한다. 웃음을 운동하자. 웃음은 삶을 즐겁고 멋지게 만드는 탁월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크게 웃을수록 자신감이 커진다.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이 웃음이다. 공자는 지지자불여 호지자(知之者 不如 好之者), 호지자불여 락지자(好之者 不如 樂之者)라 했다. 즐거울 때 열정이 나온다. 행복은 기분 좋음이다. 기의 분포도인 기분을 좋게 하는 법 또한 웃음이다. 모두 자신을 위해 웃자. **케이**

창조경영특강

지금은 스마트폰시대

요즘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내가 참여하며 느낀 것 중 가장 큰 것은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구호도 '졸면 죽는다'이다. 워낙 시장과 고객의 요구가 급변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변화 - 스마트폰

흔히 스마트폰을 '내손 안에 PC'라고 말한다. 그래서 PC에서처럼 스마트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OS: Operating System)이다. 일반폰과 다른 스마트폰은 별도의 OS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올리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휴대폰 업계에서 바뀐 세 가지 패러다임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콘텐츠 소프트웨어, 오픈시스템, 모바일 등이었고,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그럼 스마트폰은 왜 일반폰보다 비쌀까?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 하나에는 27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전 세계가 아이폰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 애플리케이션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PC와 휴대폰과 인터넷 접속 등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스마트폰은 항상 켜져 있어서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결제를 하곤 한다. 2013년 쯤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약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한국에는 사실상 모든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교체될 것이라고도 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본격화

또한 트위터는 고객들과의 소통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요즘 아이폰이 보급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트위터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올리는 글을 보고 싶으면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자유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의 역할도 겸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회사에도 많이 적용된다. '어머'라는 기업용 폐쇄형 트위터도 있고, 고객과 친숙한 소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또 부서원끼리 정보교환을 통해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는 부서 자체 트위터도 있다. 이로써 회사는 굉장히 스피드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리케이션도 게임, 라이프스타일, 뮤직 등 다양하다.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가사도 제목도 모르는 음악이 나오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검색을 해 준다. 그래서 곡과 가수명을 알려주고, 그것을 북마크 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Again 2004 - 모바일 원더랜드

스마트폰시대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들면, 첫 번째가 단말기이다. 당연히 최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세 번째는 통신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음성통신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잘 터지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무선데이터 쪽은 할 일이 너무 많다.

스마트폰시장 전망을 보면 금년 5월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25%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조만간 연평균 124%, 금년에 500만, 내년에 10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30대의 79%가 스마트폰으로 바꾸길 희망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Again 2004'라는 말이 있다. 2004년도 포춘지에 우리나라가 소개된 적이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잘 깔린 곳이 없다는 내용이였다. 유선에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이 2004년이였다면 앞으로는 무선 모바일 원더랜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의 IT가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도약한다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폰시대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이다. 나 역시 세계 최고의 모바일 원더랜드를 만들기 위해 일조할 것이다. **KT**

경영특강

글로벌

한국기업의 조건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실업률은 10%가 넘고, 재정 적자는 1조 4천 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수출국이 되면서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를 이룰려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녹색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GDP 성장 곡선을 보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비슷한 그림을 보인다. 다만, 그 규모와 깊이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일뿐 대개 큰 그림은 비슷하다. IMF 당시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보유고로 외환위기를 맞았고,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 역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발생하게 했다.

무역과 GDP도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 둘은 실업률이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했던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은 8.5%인 반면, 금융위기 때의 실업률은 그 전의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고용조정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 녹색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얻어서 살아간다.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들을 이용했는데 이 자원들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에너지들은 많은 CO2를 발생시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내에 온실가스를 증가시켜 기온과 해수면 상승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 갈 수는 없다.

때문에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소전지, 연료전지 등 에너지 개발이 많이 이산화되고 있는 이유이다. 최근 석탄의 100분의 1 정도의 CO2만 발생시키는 원자력 역시 블루오션 산업으로 뜨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노력

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을 시작으로 세계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CO2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비록 미국의 탈퇴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유럽국들의 12% 감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후 각국의 규제도 엄격해져 미국은 2020년부터 수입품에 대해 탄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EU도 항공사 배출권 거래제와 신축빌딩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등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쓰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우리의 과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에너지 수입가격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때문에 신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로 줄이겠다는 노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법제화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녹색과 성장은 하나로 보고 같이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계 국가들의 각종 보호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녹색혁명은 농업, 산업혁명에 이은 제5의 혁명이 되고 있다. **케이**



경영특강

1억 원 물고기를 탄생시킨 블루오션의 신화

물고기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는 1분 1초가 새롭기만 하다. 돈에 대한 욕심 없이 물고기만으로도 배가 부른다. 플러스알파가 세상을 바꾼다. 가치와 플러스알파의 접목은 이 시대와 세상을 바꾸게 한다.



보고 즐기고 느끼는 체험양식

31년 전 물고기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나는 전국 관상어품평회 종합 우승을 거머, 기르는 어업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체험양식어업으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세계 최초로 '검은 천사(Black Angel)' 육종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 물고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나는 비록 고등학교 중퇴지만 대한민국 신지식인 우수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상들이 인정해 주었다.

나의 머릿속은 지금도 끊임없이 물고기와 관련한 고민들로 가득하다. 물고기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이다. 전통적 개념의 양식업에서 새로운 개념의 양식업으로의 발상의 전환은 기존 식량 생산영역에 한정되었던 양식업을 체험양식업을 넘어 교육, 치유, 상상력의 양식업으로 키워 이제는 서비스 생산영역에 속하게 만들었다. 잘 기른 물고기에 잘 만든 서비스가 입혀져야 생명력과 경쟁력이 생기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물고기마을

국내 토종 잉어와 비단잉어를 교배시켜 세계 최초로 신품종 물고기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받은 검은 천사는 그 색과 무늬에서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00원씩 판매되는 치어와 달리, 검은 천사는 5만 원부터 판매되어 1마리가 1억 원이 넘는다.

사람들은 물고기마을에서 먹이를 주며 행운을 빌고, 구입을 통해 가정에서 물고기와 교감을 나눈다. 행운과 소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물고기마을로 향한다. 이것이 물고기의 가치다. 끊임없는 가치창조를 통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적 가치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물고기마을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문화를 창조하는데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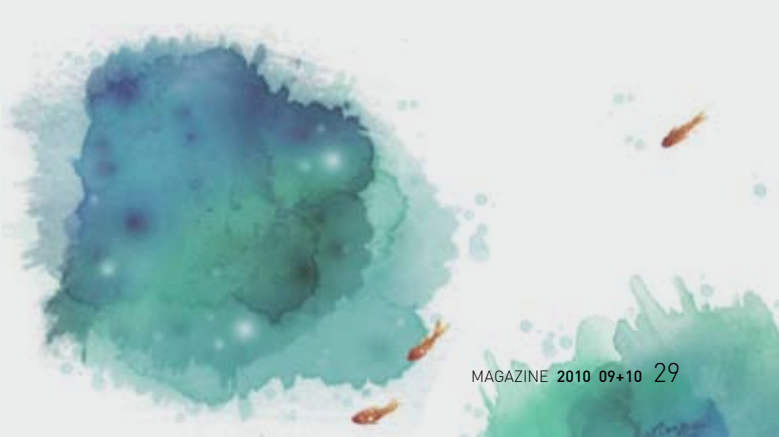
한다. 생태보전 관광형 양식산업, 바이오 산업공학융합형 양식산업, 미래형 인류복지형 양식산업, 친환경 양식산업, 생활형 양식산업을 기획, 개발 중에 있다. 그 중 냉난방 기능을 갖춘 수족관 벤치나 친환경 순환형 농어업 복합혁명산업 육성은 신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물고기마을의 체험은 교육적 가치뿐 아니라 치유와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다. 연중무휴로 진행되는 물고기 축제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일으켰다. 4계절 내내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는 가족낚시터, 물고기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3D 입체영상체험관 등 더욱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만들고 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물고기학교

내 꿈은 물고기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교육하는 지금의 학교가 아닌, 자연이 사람을 교육하고 생명체가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인재양성학교를 만들고 싶다.

물고기마을은 내 것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것이라 생각한다. 물고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안겨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함께 하는, 그래서 이 지구촌의 유일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피로회복제 같은 드링크다. **KADE**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리더십대담

지혜의 혁명시대와 영성의 리더십 :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고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뭔가를 만들지만 하면 그 제품은 세계를 흔든다. 대학중퇴에 가난했던 그는 스탠포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젊은이들이여, 계속 배고파해라. 배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어리석어라. 남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라.” 오늘날의 기적은 아주 쉬운 것인데도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스티브잡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왔다.

인터페이스를 바꾼 스티브 잡스

그동안 컴퓨터로 상징되는 전자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발전 속도가 비교가 안 되지만 시스템이 만나려면 자판, 즉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우리는 100년 전 타이프라이터 때 쓰던 자판을 그대로 쓰고 있다. 초기 타이프라이터는 기계가 입력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너무 빨리 치면 잉키므로, 가능한 늦게 치도록 만들어 두었다. 기계와 인간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만나는 접촉점인 인터페이스에는 모두들 무심했다.

그 인터페이스를 바꾼 것이 스티브 잡스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도 불편한 것을 그대로 쓴다. 인간은 정말 불합리하고 보수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개혁이 힘들다. 우리나라 자판의 ‘씨’도 제일 활용도가 높지만, 매번 예외적인 것을 치는 shift 키로 쳐야한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기계의 마음만 아는 천재들이 만든 것이다. 최근 휴대전화는 신체성이 있기에 전화와 나와의 인터페이스가 제로가 되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180도로 달라졌다. 스티브 잡스는 손가락으로 펼치고 줄어드는 인터페이스 하나로 구석기시대 스타일의 사람들도 아이폰을 주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는 한국에서 나와야 했다. 서양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한다. 도구가 필요 없고 신체성이 강하다.

뉴인터페이스, 창조시대 열 것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에서 ‘살자’는 증식이다. 생명을 자본으로

하는 것이 여자이다. 남자는 생명자본이 덜하다. 돈과 은행을 만들었지만 돈은 새끼를 낳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화폐경제학은 가짜다. 살아있지 않은 것은 증식할 수가 없다. 가상의 경제체제는 언젠가 들통 난다.”

생산자본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몇 배의 돈이 지금 떠돌고 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페이스를 생명자본으로 보는 생명공동체는 미키마우스, 테디베어로도 돈을 벌어들인다. 시스템 이전에 관계를 빨리 바꾸어라. 바꿀 것이 너무 많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영성, 물건과 인간 사이에는 지성,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감성에 의해서 인터페이스가 생겨난다. 그 대상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시장 메커니즘은 지성으로 간다. 그러나 생명 가치는 영성을 통해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아토피 환자들이다. 피부야말로 인터페이스이다. 자연과 나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고장 난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쾌감은 모두 아토피 같은 것이다. 인터페이스가 고장났는데 치료하지 않고 굶는다. 그리고 나면 더욱 쓰라리다. 기업도 정치도 경제도 전 세계가 아토피에 걸려있다. 인터페이스 혁명을 고치지 않고는 매일 굶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사이로, 관계로 눈을 돌리면 정치·경제·문화 등 엄청난 일들이 방치된 채로 1백년 동안 잠자고 있다. 인터페이스로 눈을 돌리면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린다.



〈윤병철 회장〉

21세기는 우리가 놀랄 정도로 발전과 후생을 누리고 있다. 인류의 내재되어 있는 상승지향적인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서서 다니려면 3000번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 그만큼 많이 넘어져서 오늘날 직립형 인간이 되었다. 침팬지는 급하면 네 발로 걷는다. 상승지향적인 인간의 노력은 지금의 우리 눈에는 농경생활과 원시생활에서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그 영향으로 산업혁명이 꽃피었고 IT시대도 열어놓았다. 앞으로는 생명공학과 우주산업으로 제4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다.



인류발전 이면의 사회문제점 대두

인류는 놀랍도록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러나 편리한 반면에 그림자는 없겠는가? 전쟁, 테러, 학살,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인류문명의 종언을 고하는 학자도 있으나 한국의 사회발전을 보면 명암이 쓸쓸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72%가 농민이었으나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개발원조도 가능하고 수평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자치제, 사법독립, 언론자유화 등 뚜렷한 민주사회를 누리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한류로 주변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 우선 소득격차가 심하다. 우리 시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고 해서 계층을 바꾸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교육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빈곤이 세습되고 노령화를 지탱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준비되지 않아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율마저 낮아져 노쇠국가가 될 걱정을 하고 있다.

사회지도자들이 통합 이끌어야 해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경제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해야 한다. 인류가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왔지만 국가는 해결할 기능이 없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동구 공산국가, 남부유럽 등의 나라를 볼 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유일한 길은 사회구성원이 의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를 보면 의식이 열려 있어야 하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줘야 할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모이신 사회지도자들이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의식을 새롭게 몸에 지니고 행동하는 것이 절실하다. 개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의식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경쟁해서 성공할 때에도 나에게 보다 유익한 일을 할 때, 혜택이 클 때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기면 성공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상승적인 노력을 하고, 당연하게 나누는 책무라는 생각으로 실천해야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도 똑같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조화되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기업가라면 창조적이고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세계 400대 부자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 재산의 절반을 나누자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생명자본주의로 가는 마중물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모든 사회의 5% 정도의 사람들은 영성적인 지혜를 가진 분들이다. 그들의 생각을 20% 정도가 따르게 되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40% 정도가 동의하게 되면 트렌드가 바뀐다. 현인이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여 더욱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책무라고 알고 생활해 나간다면 우리사회가 바뀌는 첩경이 될 것이다. **KHII**

기획특집 - 2010 제주 CEO 섬머포럼 지상중계

주제발표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패널토의 : 현오석 KDI 원장, 김수룡 도이치은행그룹 한국회장

종합정리 : 조순前 경제부총리

경제대토론

글로벌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경제의 재탄생



좌장 :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 회장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성장률도 오르고, 그 과정에서 출구전략으로 금리를 0.6%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한편으로 양쪽 수레바퀴의 한 축인 금융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발표와 패널발표를 해주실 것이다.



주제발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지난 1970년 이후로 전 세계에는 크고 작은 200여 개의 금융·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거시적 측면에서는 경기호황으로 신용공급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위기가 온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위기가 올 수 있다.

세계 주요 경제위기의 특징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정부 주도하에 자원수출의존적, 수입대체산업육성 등 내수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해외채무가 증가하면서 1973~81년 중 중남미 국가의 연평균 외채증가율이 27%에 달했으며, 외채 중 80%가 정부의 부채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금리 급등,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82년 멕시코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들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이후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무역 및 자본자유화 촉진 정책 즉, 'Washington Consensus'가 시행되었고, 이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올 11월 G20 정상회의를 통해 'Seoul Consensus'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80년대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금융자유화를 급속도로 진행했는데, 자유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기능이 왜곡되면서 과도한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고, 이것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은 상당히 건전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비율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이전 수년간 7~8%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재정수지도 흑자를 유지했다. 한편 1996년 말 단기차입이 집중적으로 늘어나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단기외채비중이 50%를 상회했고, 한국은 67%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 가치가 폭락하고 한국도 10월말 원화가 급속히 절하되는 등 아시아 전역에 위기가 확산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시작된 선진국의 금융위기는 리먼 사태를 계기로 신흥시장국 등에 급속히 파급되면서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서 금융관련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신용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 필요

우리는 지난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위기 재발방지책을 모색하고 있다. 바젤 I에서 II, III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감독보다는 시스템리스크를 다루는 거시감독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Korea Initiative' 의제로서 국경간 위기의 무차별적 파급을 억제할 수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다. 제 아무런 국가의 시스템리스크가 없더라도 국가간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는 생길 수 있다. 다만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패널발표 1

현오석 KDI 원장

세계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거품의 붕괴, 마이너스 성장, 고용불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경제주체의 불균형, 부채상승, 글로벌 진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G2시대가 대두하는 등 세계경제지도가 바뀌고 있다. 세계경제시스템도 금융과 실물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작년 -1.1% 성장에서 금년 4%를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실업문제나 소비회복이 지연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남유럽의 재정 위기도 복병이다. 우리 경제도 외환 및 국제금융의 불안함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자본 흐름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정책방향은 위기극복의 정책화, 위기 대응능력 배양, 위기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 등 세 부분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한다.



패널발표 2

김수홍 도이치은행그룹 한국회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더 화창한 해가 뜨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경제를 두고 '더블딕이 올 것이다,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장마에 대비해 우산도 준비해야 하고 해가 떴을 때 입을 옷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이러한 양면성이 혼재되어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은 다플레, 중국, 인도, 기타 신흥국은 인플레이를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경제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06년 9월, 도이치은행그룹의 조셉 아커만 회장은 도이치은행그룹 시니어 매니징 컨퍼런스를 앞두고 참석 임원들에게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봐라'라는 화두를 던졌다. 당시 세계경제가 잘 나가던 때였지만 우리는 옐런의 끝에 세계경제에 위기가 올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도이치은행은 사업 방향을 전환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공적자금은 일체 받지 않은 유일한 글로벌 은행이며, 그 이후 매년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리먼 사태의 영향으로 회사 주가가 80유로에서 18유로까지 떨어졌지만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일어난 현상에 불과했다. 지금 도이치은행의 주가는 3배가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 또 리먼 사태 이전에 도이치은행은 다른 기관보다 먼저 펀드레이징을 하는 선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

리먼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한도와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런데 실제 외국의 리스크 매니저들이 서류만 보다가 한국을 방문해서 기업체를 둘러보면 깜짝 놀란다. 지난 5월에도 리스크 매니저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포스코, 대우조선, 두산중공업 등을 둘러보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난 뒤 돌아갔다. 이들이 돌아가던 날 "우리 한국은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살아남으려고(survive) 노력중이다"라는 내 말에 그들은 "죽기는커녕, 크게 융성할(thrive) 나라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한도와 대출한도가 두 배 이상 늘었다. **▶▶▶**



종합정리 : 조순 전 경제부총리

조순 전 부총리의 종합정리는

36p '클로징 리마크' 발표로 대신합니다.

인문학콘서트 I

꿈과 현실의 카오스, 영화 속 미래세계를 만나다

영화는 미래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여 주는 기발함이 있다.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들 속에는 작가와 감독의 기상천외한 발상과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들어 있으며, 이 중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흥미로운 영화들이 있다.



‘쥬라기공원’ 속 공룡의 부활

‘쥬라기공원’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대표적인 영화다. 아주 오래 전에 지구상에서 멸종한 생물인 공룡을 환생시켜서 사파리 형태의 공룡 동물원을 건설함으로써 디즈니랜드를 능가하는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공룡을 환생시키는 방법이 이 영화의 키 아이디어인데, 지구상에서 사라진 공룡의 DNA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멸종한 공룡을 다시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의 킨키대학교 연구팀은 시베리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매머드 DNA 채취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매머드를 부활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영화에 나오는 공룡 부활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6번째의 날’ 속의 인간복제가 자행되는 미래세계

인간복제 조직의 실수로 두 명의 같은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복제된 김순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주내용이다. 영화는 시작과 함께 ‘97년 복제양 돌리 탄생’, ‘2000년 인간 계놈지도 작성’ 등의 자막을 보여주고, 이와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복제반대 시위’, ‘인간복제 실패’, ‘법원의 복제인간 폐기명령’, ‘드디어 6번째 날인 인간복제 금지법안 통과’ 등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최초의 복제동물인 돌리는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6년 반의 삶을 살고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났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동물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미 소, 고양이, 개 등의 복제에 성공한 바 있다. 아직은 많은 난자를 사용해야 하기에 효율성이 낮지만 이를 극복하여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는 동물복제 산업이 미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미의 DNA가 몸 속에 들어와 탄생한 ‘스파이더맨’

뉴욕 맨해튼의 고층빌딩 숲 속을 종횡무진 누비며 악당을 물리치는 스파이더맨은 주인공의 몸속에 거미 DNA가 도입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인 피터 파커는 어느 날 컬럼비아대학교의 거미박물관을 견학하는 도중,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슈퍼 스파이더에 손등을 물리고, 몸에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된다. 손가락 바닥에서 날카로운 털들이 돌아나 쉽게 벽을 기어오르고, 건물과 건물을 뛰어넘는다.

손목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된 피터는 마치 타잔이 칠팜쿨에 매달려 정글 숲을 누비고 다니듯, 거미줄에 매달려 건물 숲을 자유자재로 이동해 다닐 수 있게 된다.

미국 육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하여 거미줄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듀폰사도 신물질의 세계를 열어줄 거미줄 물질의 생산을 위해 대장균과 효모에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광고를 한 바 있다.

뉴욕 맨해튼의 고층빌딩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는 스파이더맨,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 거미 유전자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자동차 없이도 테헤란로를 누비며 날아다닐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의 즐거운 공상 과학적 상상 중 많은 것들이 미래세계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 **KHDI**

인문학콘서트 II

그림에서 보는 창의력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앤디 워홀까지

미래의 자산인 창의력은 고부가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이다. 보통 예술가들은 창의력으로 대표된다. 그 중 특히 화가는 각각의 그림마다 독창성이 있기에 창의력의 본산으로 여겨진다.



창의력은 생활 주변에 있다

창의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여러 분야에 통달했던 그는 화가로서, 20여 점의 작품만을 완성하였다. 항상 메모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메모하는 그의 습관은 창의력의 원천이자 그의 명성을 높여주는 요인 중 하나였다. '수태고지'에서 식물교감을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인 꽃의 그림, 새의 날개를 연구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날개는 그의 뛰어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다.

창의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자신의 주변에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만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에두아르 마네는 인상주의 시대의 선두자이다. 고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을 더 좋아해서 현실을 그리고자 했다. 마네가 창의력을 발휘한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에서이다. 자신의 생활에서 창의력을 찾았던 마네는 즐겨 찾았던 카페나 술집의 정경을 담기 좋아했다. '카페 콩세르의 구석'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여종업원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작품을 완성하였다.

시대변화를 빠르게 수용한 피카소

카라바조는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혁신적 화가이다. '도마뱀에 물린 소년'은 사건의 순간을 포착한 최초의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에 처음으로 점쟁이를 사실적으로 등장시킨 '점쟁이'는 당시 화가들이 선호했던 인물들에게서 벗어나 매춘부, 농부, 부랑아 등을 화폭에 담아냈다.

피카소는 성공시기가 상당히 빠른 화가로 그가 성공하기 까지의 기간은 5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까다로운 컬렉터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여 청색시대, 장밋빛시대,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 총 4번의 스타일로 변화를 꾀했다.

팝 아트로 유명한 앤디 워홀은 명성을 원했다. 스스로가 스타이길 원했던 그는 스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실현했으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작품 '꽃'은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작품을 도용한 것이다. 이는 대중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보다는 명성 있는 작가의 작품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미국의 일상적인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한다.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던 중, 만화를 좋아하는 어린 아들에 의해 만화 주인공이 미국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화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뉴욕의 화랑에 선보이면서 미국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홍보해야 하는 화가들

화가에게 창의력을 나타내는 성과는 돈이다. 피카소는 돈을 원했고 앤디 워홀도 부와 명성을 원했다.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예술을 나타내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 피카소 이후로, 화가는 그 스스로가 홍보를 해야 하는 시대이다. 생전에 명성을 얻어야만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다. 까다로운 고객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예**



클로징 리마르크

세계경제와 미래 전망

세계경제는 지금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에 있다. 이 강의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세를 전망하고, 세계의 미래에 관한 나의 견해 몇 가지를 내놓고자 한다.



선진권 경제는 대불황기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이 지났다. 세계는 전혀 없는 대규모의 재정 금융 동원으로 대공황을 막아냈으나 선진권 경제에는 대불황(great recession)이 자리 잡았다. 금년 초부터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터져서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금융위기의 씨는 뿌려져있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1980년대 이데올로기의 변화부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위기다.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다. 미국의 소비가 경제의 호황을 가져왔었다. 그 호황은 지속불가능한 호황이었다. 미국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정부기능의 재정립, 재정의 재건, 경상수지 균형의 달성, 저축성향의 회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부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 지방정부 재정의 적자해소, 제조업 기반의 재구축 등이 필요하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국론의 통합, 국가 방향의 재설정, 국민의 심리적 무력감의 불식이 절실하다.

좋은 정부가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

앞으로 계속될 선진권과 후진권의 발전 차이는 지정학상의 판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이 북(선진권)으로부터 남(후진권)으로, 서(구미)로부터 동(아시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것은 역사의 대세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 각 나라에서 내부적인 쇄신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나라의 기틀을 잡을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의 제도가 잘돼있다고 보지만 낡은 것들이 많아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된다. 각국이 제도를 고친다고 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정립이다. 미국은 작은 정부를 표방해왔다. 이것은 18세기의 이

데올로기로 가장 잘못된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 사회에서 작은 정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좋은 능력을 가진 정부의 존재,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필수조건이다. 좋은 정부를 만들어내는 일 즉, 'reinvention of governments'가 매우 시급해졌다.

세계 모든 나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Back to the Basics' 즉, 기초 내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세계의 모든 정상적인 나라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카오스와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의 세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각자가 자기의 목표를 알고, 각 정부가 자기 국민의 소원을 알고, 이렇게 해서 정부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정상화된 시대가 아니겠는가.

한국은 선진국이 될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단편적인 개혁이 쌓이면, 나라는 갈피를 잡기 어렵고 불신만 커진다. 미래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확고한 전략 위에서 제도 개혁을 구상해야 한다. 유능한 정부는 방향설정을 하여 국민들과 호흡 할 수 있는 정부이다. **김재민**



지혜의 시대를 살자

필자는 지난 30~40년 동안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기업가와 CEO들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또 이를 원동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1975년 2월 5일 인간개발연구원을 창설하고, 인간개발역지사연구회를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의 결심과 지속성의 밑바탕에는 '사람(국민이) 국가와 기업의 제1자본'이라는 신념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35년간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지만 신념의 뿌리는 '아름다운 미래'라는 토양으로 다져졌고, 연구원은 회원들과 함께 튼실한 나무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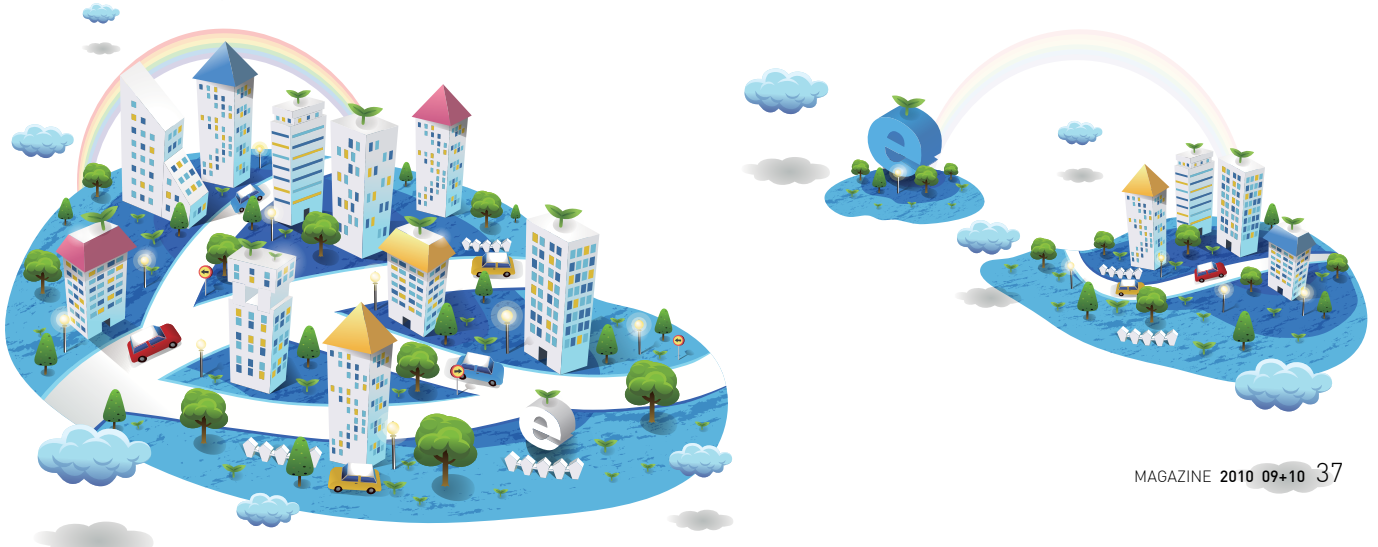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난 30~4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룬 끝에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으며, 올 11월에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급성장의 그늘이 사회 곳곳에 드리워지고 있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MB정부의 이번 8.8개각 인사청문회가 보여주듯이 정치적 부패와 취약성이 자자하고, 경제적 소유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경제사회의 부조화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남북문제는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어 경제성장만으로는 결코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 선진화의 꿈을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2012년 '세계적 충격(World Shock)'이라 할 만한 큰 변화가 인류사회에 닥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구원의 인간개발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산업화시대 이후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가 성장의 동력인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분수령에 서 있다. 이제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과 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영혼의 시대, 지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물질적 풍요에 치중하여 경제성장에도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그 수단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몰두해왔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인류가 평안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고 새로운 변명과 행복이 약속된 미래, 즉 지혜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혜의 시대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부강한 나라와 약소국,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잘 사는 지혜를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자각은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그들이 가진 재산의 50%를 사회에 내놓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운동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백년 스승'이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남긴 지혜는 그 사회의 본보기는 물론 인류의 유산으로 남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혜의 선각자들이 남긴 교훈은 후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구원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류역사에 큰 유산을 남긴 지혜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는 네오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의 혁명가가 되어 미래에 값진 유산을 남길 지혜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Better people Better World가 지향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혜의 멘토클럽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관심 있는 독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 **김대**



[회원소식]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 앞으로 지역 조직을 통해 농어촌의 숙원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농어촌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위원회는 농협이 발굴한 과제를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GE코리아(사장 황수)와 KOTRA(사장 조환익)**는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발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력에 KOTRA는 GE와 녹색산업 개발 및 투자유치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 프로그램의 국내 확산과 한국 유망 기술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GE 에코챌린지에서는 재생에너지, 그리드효율, 스마트홈·스마트빌딩 등 세 부문 신기술과 서비스, 사업모델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웹사이트(www.ecomagination.com/challenge)에서 할 수 있다.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 **(주)다비육종(회장 윤희진)**의 브랜드육 웰팜포크가 경기도청에서 G마크 신규 사용권 부여서를 교부받았다. G마크란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로서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농특산물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생산 농가 및 업체들을 선정하는 도지사 인증 통상 상표다. 이번 2010년 상반기 인증업체 중, 돼지고기 부분으로는 웰팜포크가 유일하다. 다비육종의 YBD 돈육 웰팜포크는 종돈전문업체에서 관리, 연구하는 만큼 높은 위생도와 안전한 품질관리로 이번 G마크 인증 획득을 하게 되었다.

■ **천일식품(주) 천석규 대표이사**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제28회 상공대상의 사회복리부문에 선정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천일식품은 거듭된 풍년 및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쌀 산업 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 쌀을 꾸준히 이용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 김상래)**는 9월 8일-11일까지 일산 KINTEX전시장(부스No.KINTEX 1,2홀 733번)에서 열리는 제17회 국제 인쇄산업전시회(KIPES)에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Web상에서 편집물을 작성하는 차세대 편집 솔루션 'WebTop Printshop'을 선보

일 예정이다. WebTop 솔루션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DTP환경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가의 편집 프로그램, 고가의 서체, 편집 전문 인력 확보 등 출판물 제작의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출판 공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Webtop Printshop을 대여방식으로 인쇄소, 디지털 프린터 업체, 실사출력 서비스 업체들에게 웹사이트 운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유한김벌리(대표이사 최규복)**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피부관리 화장품 '티엔(tn)'을 출시했다. '10대를 위한 자연(teen's nature)', '진정한 자연(true nature)'이라는 의미에서 'tn'으로 명명된 이 제품은 피부관리 화장품이 부족했던 10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순수한 피부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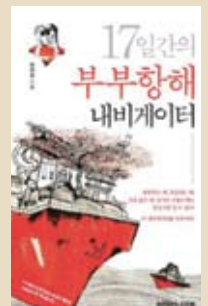


■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는 사랑의 쌀나눔 본부와 함께 지난달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쌀보내기 추진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사랑의 쌀보내기 추진본부'는 폐휴전화와 금니 수거, 쌀 환한 주고받기 운동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쌀을 구입해 생계가 어려운 홀몸노인이나 경로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 **조인스HR(대표이사 이재산)**은 다국적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높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인사전문자격증인 PHR자격증 과정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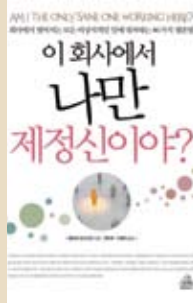
- 일정 : 10월 2일 ~ 11월 20일(매주 토), 09:00~18:00(8주)
- 장소 : 조인스HR 본사 교육장
- 참가문의 : 02-890-0840

■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엄정희 서울사이버대 교수 부부**는 부부행복 지침서 <17일간의 부부행해 내비게이터>라는 책을 출판하여 '결혼·가정'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책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핵심요소인 부부의



행복요인을 17개로 분류해 하루에 하나씩 익히면 17일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 **전미옥 CMI연구소 대표**는 35년 넘게 직장인들의 심리 상담을 해온 갈등해결전문가 앨버트 번스타인 박사의 저서 <이 회사에서 나만 제정신이야?>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본 도서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상식적인 일에 대처하는 86가지 생존법을 통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 **김동기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희수(喜壽)를 맞이하여 고려대 LG-POSCO 경영관에서 시문집 <청천에 펼쳐이는 기처럼>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주)리사이트 이종원 대표**

는 (사)한국미술협회 차대영 이사장과 전 국민의 미술사랑과 아름다운 미술품 보급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미술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 **경영컨설턴트 겸 작가로 활동하는 김진휘**씨가 최근 <내 운명과 한판 승부> (론테일 콜로세움)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탐구와 고민,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좋은 인생, 올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해답과 지혜를 이야기 형식으로 엮고 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한영수 첨단엔프라 대표이사의 자녀 보영양의 결혼식**이 지난 8월 14일 여의도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한홍섭 뷔피프랑스 대표이사 회장의 차녀 숙정양의 결혼식**이 지난 8월 28일 레라튼워커히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모임소식]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의 9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셔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9월 14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그랑카페
 - 참석여부 :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 **人經會(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 9월 월례경기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9월 28일(화) 오전 5시 40분
 - 장소 : 한양 C.C
 - 참가대상 : 인경회 정회원 및 참석 희망자
 - 참석여부 : 총무 이종원(H.P. 010-5306-8587)

■ **YCF(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욱) 7월 모임**은 이상길 교수님의 초대로



배수철 장흥아트파크 대표의 안내를 받아 아트파크를 둘러보았고, 조각 아틀리에에서 여러 작가들의 레지던스 작업공간을 작가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참관하였습니다. 이어 이상길 교수께서 아틀리에 마당에서 직접 준비하신 삼겹살과 와인파티로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이어 이상길 교수님의 개인 작업실로 장소를 옮겨 담소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8월 모임은 휴가철인 관계로 휴회하였으며, 9월 모임은 YCF 회원이신 김현진 아트앤마인드 대표의 초대로 아래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9월 14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아트앤마인드 art' n mind 예술치료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1507호)
- 내용 : 아트 케어(미술로 보는 심리)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승 / 총무 이계옥) 7월 모임**은 <내 인생의 첫책쓰기>의 공동저자인 오병곤 비즈피어 수석컨설턴트를 모신 가운데, 왜 책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책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쓰지, 어떤 전략으로 쓰지 등 책쓰기 단계에서의 체크사항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에세이클럽 회원들의 출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혜선대표의 신간 <스토리마케팅>의



출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8월 모임은 하계휴가 관계로 휴회하였으며, 9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갖고 손광성 수필가를

모신 가운데, 수필쓰기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오후 6시
- 장소: 문학의집 · 서울 산림문학관 2층
- 문의: 정용달 과장 (TEL. 02-445-1949)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동신선박주식회사	강부부	회장	9월 1일
■ (주)별엔	최용호	대표이사	9월 1일
■ 우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 1일
■ KCTC	이윤수	대표이사 부회장	9월 1일
■ 창영전자	박세근	사장	9월 2일
■ 디프로텍	고영하	회장	9월 10일
■ G&B인슈(주)	이용원	사장	9월 15일
■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 20일
■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황경호	이사	9월 30일
■ (주)다산	윤영상	회장	10월 1일
■ (주)성부트레이딩	차진영	사장	10월 1일
■ (주)성신신소재	임병문	회장	10월 1일
■ (주)유니온	김명식	부사장	10월 10일
■ 한신전선(주)	김영재	회장	10월 10일
■ (주)아트앤마인드	김현진	대표	10월 15일
■ 흥안실업(주)	탁재웅	회장	10월 15일
■ 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10월 16일
■ 엠에스씨코리아	강관유	사장	10월 22일
■ 현대교역(주)	장남수	회장	10월 24일
■ 우리자산운용	차문현	대표이사	10월 28일

[신규회원]

■ 홍영표 KITIS 산학연정보사 대표이사 (개인회원)



KITIS(Korea Industrial &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 산학연정보사는 1994년 7월 7일 창립하여 IHS사의 세계산업 기술 규격 정보와 IEEE IEL의 학술정보의 한국서비스를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서울대, 연대, 고대, KAIST,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70여 주요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전화: 02-3474-5290 / 팩스: 02-3474-4603
- 홈페이지: <http://www.kitis.co.kr>

■ 추정임 (주)흥진플러스 디자인 연구소장 (개인회원)



흥진플러스는 아이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한복제작으로 아동한복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1등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흥진플러스는 35년 된 가업을 계승 발전시켜 현재는 북한에 대량 생산시설을 두고 제작하는 남북경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최고의 품질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 전화: 032-613-0335 / 팩스: 032-613-7727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 춘의테크노파크 102동 1310호
- 홈페이지: <http://www.koreadress.co.kr>
- 추천: 주민수 (주)흥진플러스 대표이사

■ 김일환 (주)엔터정보기기 대표이사 (세미나회원)



(주)엔터정보기기는 컴퓨터유통 판매와 납품을 양대 축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컴퓨터 유통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3272-5763
- 홈페이지: <http://www.entercom.co.kr/>
- 추천인: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대표이사 사장

■ 박길수 (주)유니에버 대표이사 (개인회원)



인조대리석 유통 및 무역업을 하는 기업으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박길수 대표는 (사)대한올트라마라톤연맹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전화: 031-767-8887 / 팩스: 031-767-5558

[연구원 소식]

■ 권기식 인간개발연구원 제4대 원장 취임

본원은 지난 7월 21일 권기식 전 쿠파미디어 부사장을 제4대 원장에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권 신임 원장은 경북대 · 한양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지도자과정을 수료했



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청와대 정치국장, 한양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일본 시즈오카현립대학 초청연구원, 주택관리공단 기획이사, 서울종합예술학교 명예학장, 중국 장춘대학 객좌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서울오페라단 이사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재향군인회 정책자

문위원, 일월포럼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권 원장은 “인간개발 연구원 35년의 전통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간개발’을 위한 글로벌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권 원장은 지난 2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0 CEO 미디어스피치 과정 개강

본원과 아나운서 전문교육기관인 봄온커뮤니케이션이 함께 기획한 ‘2010 CEO 미디어스피치 과정’이 9월 7일(화) 봄온커뮤니케이션 교육장에서 개강합니다. 10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개인과 기업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성연미, 김상준, 한준호 아나운서 등 전·현직 아나운서들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언론매체와 미디어가 공존하는 시대 CEO의 스피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시 : 9월 7일 - 10월 12일 오후3시~6시, (매주 화요일)
- 장소 : 봄온커뮤니케이션
- 문의 : 민선아 과장(TEL. 02-445-1948)

■ 크리스천 CEO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본원은 (재)CBS기독교방송(사장 이재천)과 공동으로 ‘크리스천 CEO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합니다. 이를 위해 본원과 CBS

는 지난 8월 19일(목) CBS사옥에서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식을 갖고 크리스천 CEO AMP과정을 시작으로 교육, 영성,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개발 및 영성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2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저녁 열리는 이번 과정은 크리스천 기업 CEO 및 임원,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19주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인과 고위관료, 저

명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들어 경영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예수의 섬김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CEO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2일~2011년 2월 15일 오후 6시 30분~9시, (매주 화요일)
- 문의 : 장소영 실장(TEL. 02-2203-3500)

■ 제5회 찾아가는 CEO교실 - 김용복 회장 강진 영동농장 방문

가을을 맞아 황금빛 들판 위로 매일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울려 퍼지는 1백만 평 규모의 강진 영동농장을 찾아갑니다. 사막의 녹색혁명 기수이자 친환경농법, 유기농전문단지화 그린 음악농법으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용복 회장의 초청으로 본원 회원님을 모시고 다섯 번째 찾아가는 CEO교실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복장학회’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과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한국농업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발굴, 지원하는 등 휴농사, 사람농사의 대명사인 김용복 회장과 함께 다산초당, 영랑생가 등 남도 강진의 향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9월 10일(금) ~ 11일(토) 1박2일
- 장소 : 강진 영동농장
- 문의 : 경영자교육팀 김인선 (02-445-1946/smile@khdi.or.kr)

■ 본원, 경기 창조학교 방문

본원 회원 10명은 지난 8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영어마을 내에 위치한 경기 창조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청승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방문에서 회원들은 경기 창조학교 소개와 비전에 대한 이 사무총장의 강연을 듣고, 영어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본원과 경기 창조학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조적 인간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및 <좋은사람 좋은세상>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식 및 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홈페이지 : www.khdi.or.kr

전화 : 02-2203-3500 / 팩스 : 02-2203-1974

여름휴가도 뒤로 한 채 이어진 평생학습의 장

2010년 7~8월, 전국적으로 126회 강연 열려

〈교육컨설팅소식〉

■ 지방자치아카데미, 7~8월 100회 강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지방자치아카데미'가 7~8월에도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50여 곳의 지자체에서

100회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주요 강연으로는 고홍군청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상주시청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구미시청에 신영희 국악인, 강화군청에 고승덕 국회의원, 광주동구청에 김용택 시인 등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였다.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교류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장성군부터 시작되어 현재 16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는 교육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매년 70여 곳의 지자체에서 800여 회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기업·공공기관에서 18회 교육



기업 정기교육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김홍신 작가가 강연에 나섰고,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에서는 김의수(주)TNV어드바이저 팀장을 모시고 재테크 특강을, 리바트는 윤태익 CMC의식경영컨

설팅(주) 대표를 모시고 의식개혁 특강을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하는 'JDC글로벌아카데미'에 유인경 경향신문 부국장, 오한숙희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 등이 강연에 나섰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신상훈 작가를 모시고 편경영 특강을 진행하였다. 워크샵 진행은 8월 26-27일까지 경북 문경시 산하 이장 250명을 대상으로 '이장단 워크샵'을 총괄 기획 진행하였다. 이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난 7-8월 총 18회의 교육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병영선진화를 위한 아카데미 8회 개최

군부대의 지식과 학습공간 창조를 위한 '문화지식병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진육군아카데미와 공군하늘사랑아카데미는 지난 7-8월 두 달에 걸쳐 총



7회가 운영되었다. 이번 아카데미는 천안함 사태 이후 심도있는 안보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연사로는 오명 건국대 총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소장,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 등이 강연에 나섰다. 선문화지식병영사업은 현재 군리더들의 지식 함양과 지휘관급 인사의 리더십 함양 등 육·공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정기아카데미 및 워크샵, 특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본원은 오는 9월 군선진화 및 군 역량강화, 연계성 제고를 위한 육해공 통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우정사업본부, 우편콜센터 KS 인증 정기심사 통과

우체국 우편콜센터(1588-1300)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KS 서비스 인증 정기심사를 통과했다. KS 서비스 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근거해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한국산업규격 이상의 제품이 나 서

비스에 대해 국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우체국 우편콜센터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KS 서비스 인증을 받았다.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체국 우편콜센터는 상담사 262명이 하루 평균 약 3만8000건의 우편 민원상담, 택배·EMS·우체국쇼핑 접수, 종적조회 등 종합민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VOC 관리시스템과 공공기관 최초의 상담 만족도 조사시스템(ACS) 구축, 휴대전화 문자 상담 및 영상안내서비스 도입 등 상담품질 향상과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경주시, 지식경제부와 방폐장 건설 MOU체결**



경북 경주시는 지식경제부와 방폐장 건설·운영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방폐장을 유치한

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MOU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3대 국책사업(방폐장,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전반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MOU 체결이 그동안 경주시와 중앙정부 간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방폐장 건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진천군,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최우수 평가**



진천군 노인복지관이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1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진천군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2006년부터 4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진천군은 올해 4억여 원을 들여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총 16개 사업에서 35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제천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0 대충청방문의 해’로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권의 관광자원을 만끽하기 좋은 해이다. 이 중 충북에서 열리는 가장 대표 축제가 바로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제천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다. ‘한방(韓方)의 재발견-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의약 분야 최초의 국제행사로 다양한 한방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과학이 진화할수록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한방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로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동의(東醫 : 서양의학에 배치되는 말로 아시아의 의학) 축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Special Focus

글·윤백중 삼화비닐(주) 회장

본원은 지난 5월 1일 개막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2010 상하이엑스포'에 연수단을 파견했다.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장, 김창송 성원 교역 회장 등 본원 회원 22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6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엑스포 참관과 함께 상해임시정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다. 연수단은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세계시장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녹색산업, 미래도시 인프라, 청정에너지, 최첨단 기술 분야의 선진기업 사례를 견학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외교통상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의 특별 예우로 연수단은 보다 원활한 엑스포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상하이엑스포의 생생한 현장을 윤백중 회장의 관람 후기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 편집자 주

“도시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2010 상하이엑스포 연수단 - 경제올림픽 상하이엑스포 방문



1 상하이관 2 중국관 3. 중국관 내부

역사상 최대 규모를 꿈꾸는 상하이엑스포

“도시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192개 국가와 50개 국제기구가 화합하여 개최하고 있는 '2010 상하이엑스포'는 국내외에서 7,000만 명의 방문객을 계획하고 있다.

상하이 엑스포는 면적이 5.28km²로 황푸강(黃浦江) 동쪽(푸둥)은 3.93km²이고, 서쪽(푸시) 지역은 1.35km²로 나뉜다.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3.28km²에 이른다. 개최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184일이다.

엑스포의 마스코트는 하이바오(海寶)로 바다의 보물이라는 뜻이다. 엠블럼은 한자 '世(세)'를 형상화하여 그린 도안이다. '세'자는 3인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나타낸다. 즉, 인간본위(人間本位) 사상의 구현을 염원하는 뜻도 있다.

등록 엑스포(종합 엑스포)인 상하이엑스포는 하루 관람객이 40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엑스포 150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경제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관

중국관은 한 면의 최대 길이가 140m, 높이 69m로 엑스포 전체 국가 중 최대이다. 특이한 건축양식이다. 건축면적은 2만m²인 국가기관과 3만m²인 중국 지방관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 상하이관도 있다.

1층 현관 입구에서 중국관 관장이 안내를 하며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제한된 시간에 모두 볼 수가 없어 중요한 것만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다녔다. 입구 정면 쪽에 금으로 만든 해바라기와 다른 꽃이 섞여 있었다. 화합을 뜻하는 2종류 이상의 꽃이라고 한다.

영화관으로 들어가 중국 근세 30년을 엮은 영화를 관람했다. 대형 화면에 역동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난했던 30여 년 전에서 발전하는 건설업으로 20년 전을 엮고, 10년 전에는 IT와 자동차로 이어지는 발전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1978년에서 2005년까지 농경사회, 공업사회, 제3의 물결 등을 구분하여 당시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영상화하였다. 1993년 인공위성을 띄웠던 것과 미래 2030년까지 각 분야의 모습도 상영해주었다.

녹색성장관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1년 1회 1모에서 100kg을 생산하는 실내재배는 인공 햇빛과 물을 주고 비료는 소량을 주는데 잘 자라고 있다. 햇빛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첨단농사 기법이다.

다음으로 생화와 수목화 전시실을 보고 그들의 뛰어난 목화 재주에 감탄했다. 맞은편에 9세대가 사는 평범한 3층 연립주택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영상으로 변하며 2010년을 기념하는 2010명의 유명인 얼굴로 변하였다. 마치 카드섹션을 하듯 여러 형상이 바뀌면서 많은 것을 보여준다.

엑스포 관람인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자유분방하고 밝은 표정으로 구경을 하고 있다. 옷도 깨끗하고 행동도 세련되었다. 인구 14억 명에서 7,000만 명이 관람하면 인구의 20분의 1이 된다. 입장료도 한화로 3만 원인데 중국수준으로는 비싼 편이다. 우리 일행은 중국 관과 상하이관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했다.

상하이관

1800년대에서 2010년까지 상하이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표현하여 감동을 주었다. 들어간 자리는 큰 배안이고 여기서 1800년대로 가서 황푸강을 따라 크게 한 바퀴 돌며 상하이 발전 역사를 모두 화면으로 재현하는 영상을 관람하였다.

옛 상하이는 기형적인 도시였다. 그러나 최근 반세기에 걸쳐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거대한 규모의 개조와 건설 작업을 진행하여 상하이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로 부상시켰다. 현재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대외 무역항구와 공업 기지이며, 또한 중요한 금융, 과학, 기술, 문화와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한곳에서 20분만에 다 보았다.

일본관

입구에서 큰 원을 그리며 2020년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자연친화적 에너지를 생산한다. 대형 영화상영관에서는 죽어가는 학을 치료하여 자연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고 있다. 미래형 로봇을 연구하여 무대에서 로봇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2인의 로봇이 음률을 맞추는 지능형 로봇을 만들어 선보였다.

일본기업관의 벽에서도 3대의 로봇이 10층 빌딩을 올라가서 철을 하고 내려오는 장면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총지배인이 환영 인사를 했다. 총 개요를 설명하고 8개구로 구분하여 미래형 로봇, 생명공학 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약 50분간 볼 수 있는 규모다.

아랍에미리트관

크게 만든 영화관에서 화면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명한다. 큰 홀에 많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사각형으로 여러 종류의 채널로 TV가 나온다. 내용은 복지, 교육 등 미래 예측 설명으로 보인다.



스위스관

건물 외형이 붉은 점으로 장식하여 찾기가 쉽다. 곤돌라를 타고 10층 높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실습하였다. 대형 영화관의 영상은 알프스의 몽블랑이나 리기봉 같은 높은 곳에 손이 잡힐 듯한 거리에서 움직이며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산 위에 집과 동상, 표지 등이 보이고 만년설은 높을수록 쌓여 장관을 이룬다. 아래 눈밭의 평화로움과 차츰 올라가서 높은 봉우리 끝까지 반복으로 소리 없이 보여준다.

한국관

역대 엑스포 중 가장 큰 규모로 황푸강 근처에 위치한 한국관은 대지 6,160㎡의 연면적 7,683.5㎡로 12개 나라가 한국과 같은 대형 면적을 가지고 있다. 192개 관 중 자체 건물을 가진 나라는 42개이고, 한국도 여기에 해당된다.

오후에 한국관을 방문했는데 관장이 직접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VIP 대접을 받았다. 한국관은 최우수 국가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총 382억 원으로 건물, 안내원 등 경비 모두를 해결했다고 한다. 일본은 1,500억 원, 사우디는 2,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관람을 시작했다. 첨단 3D TV, IT제품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지며 조작할 수 있게 했다. 여러 형태로 화면 그림 변형이 가능하고 친환경 광섬유로 구현된 빛의 공간에서 체험하는 3D 디지털 숲, 3D TV와 3D 안경으로 입체실사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차분하게 보면 작은 조각의 글씨들이 조합하여 한국의 도시 정체성을 상징한다. 함께 어울려 산다는 뜻의 '다올'은 한국관의 정신을 잘 함축한 순우리말이다. 2층 전시장으로 이어지는 대기열에 6대의 키오스크에 대기 예상시간 등 관람정보를 제공해준다. 한식의 우수성과 중국인들에게 사랑받는 한식도 소개하고 있다. 심장을 울리는 소리와 조명 속에서 체험하는 신명나는 한국의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어지는 신명나는 한국문화 영상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된다. 한국인의 감성과 문화적 소양을 느낄 수 있다.



4 한국관에서 참가자들 5 아랍에미리트관에서 6 한국관 관람 후 단체사진

유비쿼터스 라이프 이야기로 기술의 향연을 체험한다. 다채로운 한류문화를 선보인다. 한국의 맛과 멋의 세계를 보았다. 소통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인종, 연령, 국경의 장벽을 넘어 언어를 통하여 소통과 공감을 체험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관은 문화의 도시, 자연의 도시, 친구의 도시, 미래의 도시로 한중 우애를 공고히 하고 미래 동반자인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체험한다. 또한 한중 대표 예술가가 함께 표현하는 아름다운 조형물로 한중간의 우의를 다진다는 금란지교(金蘭之交)의 사이를 희망한다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한국기업관은 한국의 대기업이 기업관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효성 등 12개 기업이다. 내용은 'Green City, Green Life'가 중심이다. 1~4층으로 구성된 한국관은 1층은 환영의 장소, 2층은 한국 12개 기업의 이미지광고, 3층은 세계인에게 감동 주는 기업, 4층은 녹색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고 기술과 환경이 함께 하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미래다.

조선관

한국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선관이 있다. 한국관과 달리 관람객이 많지 않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전면 중앙에 대형 칼라TV가 있고 여기에 남녀가 출연하여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남남북녀라 했던가. 여자들의 노래솜씨도 좋고 얼굴도 예뻐 보였다. 홀 모든 벽에는 여러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출구 쪽 한 면에 기념품 판매장이 있다. 사람들이 몰려서 상품을 구경하고 사기도 한다. 액세서리, 우표, 토종용품, 옷 등의 기념품들이다. 기념우표가 몇 종류 있는데, 2006년 길림성 여행 때 본 우표보다는 포장이 잘되어 있고 인쇄도 선명하여 품질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조선'이란 대형글씨를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하였다. 전시관 규모나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빈약함을 느꼈다.

전망대와 차창관광

6월 26일 일요일은 예원과 전망대, 임시정부청사를 보기로 예정되었으나 비가 와서 예원은 포기하고 차창관광으로 대체하였다. 예원

은 명청시대에 강남원림 품격을 집대성한 공원으로 매일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상하이 환치우 금융센터 전망대를 올라갔다. 안개가 끼고 비가 와서 창밖은 하얀 우옷빛밖에 없다. 건물은 총 101층 492m로 100층에 위치한 전망대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무려 14년간 공사 끝에 2008년 8월에 준공되었다고 한다. 고속 승강기는 100층까지 48.7초에 올라간다. 우리 일행은 95층까지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품도 샀다. 점심식사 후 고속 자기부상열차로 공항으로 이동했다. 시속 435km까지 달리는 기차는 30km를 7분 15초에 질주하였다.

중국인들은 8자를 좋아한다. 8자가 있는 날은 운이 따르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업, 회사 창립 등도 8자가 있는 날을 택한다. 차량 번호를 보면 번호판 앞에 '호(滬) BU 6688' 식으로 앞 표시가 호(滬) 자로 되어 있다. 이유를 물으니 상하이가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세월이 흘러 육지가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이름도 처음에는 해상(海上)이라 부르기도 했다. 기원전 13세기에 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낚시질하면서 낚싯밥을 묶는 낚시 갈고리를 호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상하이 시내 외곽 한 귀퉁이에 초라하게 자리한 임시정부청사는 승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연립주택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초라한 3층집이다. 독립투사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태극기도 벽에 붙여 놓았다.

찾길 쪽으로 조금 나오면 입구에 사무실이 있다. 방명록에 서명하고 현금함에 간단한 성의 표시를 했다. 사무실 한쪽에는 방문객을 위한 기록 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역사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1919년 4월 13일 상하이에서 처음 설립을 선포한 후 9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민족의 중요한 사적으로 지정된 후로 상하이를 찾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찾아가는 곳이다. 최근 청사를 방문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의 원 몇 명의 얼굴을 뒤로 하고 일행은 발걸음을 옮겼다. **카이**

김동수 듀폰 아시아태평양 고문

2010년도 제14회 'JDC 글로벌아카데미'

6월 25일(금)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리더십, 도전정신, 그리고 꿈

2008년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와 본원이 개설한 'JDC 글로벌아카데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필수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적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부터는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KCTV제주방송, 제주의소리 등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명품 아카데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6월 25일, 제주시에서 열린 제14회 아카데미에서 "리더십, 도전정신, 그리고 꿈"을 주제로 강연해주신 김동수 고문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꿈,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말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저 배고프지 않을 직업 가지고 사는 것이 꿈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한없이 크고 높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럽다. 꿈이 있는 사람이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늘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져라. 대신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한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편으로 요즘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식사회에서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사는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너는 이 양극화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국제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도 푸켓보다 잘 살고, 발리보다 좋은 곳이고, 하와이보다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러한 제주를 어제의 모습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제주로 오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고객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중국에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제주로 그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주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경쟁사회에서 '이긴다(Winning)'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 때문에 양극화시대,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긴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왜 이러한 환경변화가 생겼을까?

첫째, 우리는 지금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화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둘째, 지속가능 성장의 한계다. 오늘날 전 세계가 맞고 있는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은 50년, 100년 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기도 한다.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전에 없던 '사오정', '오륙도' 같은 단어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속이 어렵다. 셋째, 생산성이다. 우리는 비교적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아무런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



● 김동수 고문

1947년 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화학공학 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이다호대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듀폰 한양안료 매니저를 시작으로 듀폰 존스빌공장 부공장장, 듀폰 전 세계 불소생산 총책임자, 듀폰 전 세계 부직포사업 총괄담당 부사장 등을 거쳐 듀폰 아태지역 본부 부사장, 사장, 그리고 듀폰 한국법인 회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면서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이다. 과거 리더십의 힘은 지식에서 나왔다. 지식이 많고, 데이터와 경험, 네트워크가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리더십의 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한다. 지식이 독점이 아니라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해답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답'이라고 하면 절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변화를 앞서가는 변화로 208년 이어온 듀폰

듀폰은 208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 출발은 화약공장으로 시작했다. 앞선 100년 동안 화약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듀폰은 이 때 화약으로는 다가올 100년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화학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세계적인 R&D센터를 만들어서 합성섬유 등을 개발해 사업화시켰고, 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 화학산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듀폰은 제3세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며 얼굴을 다시 한번 바꿨다. 화학산업이 1960~70년대에는 3~4배씩 성장하는 산업이었지만 이제 IT가 발달하고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서 화학산업은 평균밖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평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화학에 바이오를 접목해 과학회사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미국시장은 좁다며 세계화를 선언했다.

그 결정을 하고 5년 만에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비즈니스를 매각하고, 새 그림에 맞는 30조 원의 비즈니스를 흡수했다. 회사를 사고파

는 데는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고 노력도 필요하다. 사람이 들고 나아가는 일이고, 조직문화가 뒤집히는 일하기에 그렇다.

듀폰 회장에게 왜 이렇게 빨리 변화를 추구하는지 물었더니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야지 변화를 쫓아가서는 일류기업으로 남을 수 없다. 변화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실패확률이 30%는 된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100% 망하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을 위한 사회기반 마련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이다. 과거에는 스탠더드를 가지고 살았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미국의 스탠더드를 갖고 살았지만 지금 세상은 더욱 커졌고, 할 일도 많다. 부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만큼 스탠더드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듀폰의 임원들도 세계화를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 세계를 다닌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세계화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속에 여러 개의 답이 공존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의견차이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자. 하나의 스탠더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느 한 쪽이 틀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스탠더드가 여러 개다. 다 생각이 다르다. 거기에서 누가 옳고 그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즉, 의견은 다르지만 나도 옳고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의 존중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세가 리더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만 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까? 그래서 사회기반이 필요하다. 사회기반을 만드는 것은 윤리적인 사고, 안전, 환경보호, 인간존중 등 4가지로 만들어진다. 국제화시대에서의 사회 근간이라면 기술력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4가지다. 그럼 우리사회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킬까?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을 들라면 윤리, 변화를 리드하는 힘, 창조경영, 환경, 안전이다.

듀폰이라는 회사가 208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듀폰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당장 사표를 내야 한다. 직원들이 항상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변화 속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듀폰이 208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었구나를 생각한다.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 덕목

리더십이 뭘까? 이제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리더의 성패를 좌우한다. 예전에는 조직도를 삼각형으로 그렸지만 지금은 역삼각형으로 그린다. 그리고 리더는 맨 아래에 위치한다.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맛이 나게끔 해주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럼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리더는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리더는 행동해야 한다. 조직원들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리더이다. 그리고 리더는 실천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원칙을 중요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복잡한 사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소통에 있어서는 듣는 소통이 중요하다. 직책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CEO들은 부하직원들과 있을 때 계속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말하는 동안에는 배울 수 없다. 말을 들을 때 배우게 되는데, 말만 하는 사람은 이 복잡한 사회에서 많은 것을 취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안전망을 넓혀 가치를 높여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망 속에서 살고 싶어 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뭔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병도 걸리고, 성장통도 겪고, 공부하느라 고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안전망을 깨는 과정이다. 안전망을 깨는 나이는 성인이 될 때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듀폰 미국 공장의 공장장직을 맡으면서 '저 친구를 시키니까 일을 잘 처리하는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노

력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공장장을 하면서도 1년 동안 신규로 공장을 지어서 성공적으로 가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미국 본사에서 '엔지니어로서 성장해왔지만 이제 세일즈도 한 번 해보라'라는 제안을 해왔다.

결국 좀 더 성장해 볼 욕심에 세일즈를 시작했다. 8천만 불 정도 되는 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시장이었고, 부하직원도 60~70명 정도 되는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 그런데 생각지 않던 판매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힘들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후회도 했지만 그렇다고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생각하고 부하직원들과 다니면서 배웠다. 6개월이 지나면서 '세일즈도 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1년이 지나자 전에는 공장이 집처럼 편했는데, 고객을 대하는 것이 집처럼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나는 비즈니스맨으로 다시 태어났다. 회사에서도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43살이었는데,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자 5년 만에 8번을 승진하게 되었다.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하면서 6년 만에 아시아책임자로 부임하게 됐다. 결국 사람이 안전망을 좀 더 넓혀서 그만큼 이용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기회는 오게 된다.

듀폰에는 '6개월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만든 제도로 회사에서는 '김동수 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6개월만 죽기 살기로 하면 그것이 나의 안전망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6개월만 버티면 성과가 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스스로가 깨야 할 벽이 수천 개는 될테니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라고 이야기한다. 도전을 계속했을 때 세계인들과 경쟁해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길 바란다. '해라'가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들어 주고, 새로운 것을 보여줘 자극을 줘야 한다.

그런 젊은이들이 제주도에서 성장해서 세계로 나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제주를 세계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재민**



새벽에 눈뜨면 흠어지는 꿈을 기록하는 사나이



필리핀 휴양도시 세부엔 '임페리얼 팰리스 리조트'라는 청결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1년 전에 건설했는데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제일 좋은 리조트 호텔로 꼽히더군요.

저는 지난 여름 나홀간 휴가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464호실. 좌우에 방이 날개처럼 배치된 거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파묻혀 탁자에 두 다리를 올리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습니다. 통유리 너머엔 그림 같은 풍경이 단계적으로 펼쳐집니다. 시야 제일 가까운 곳에 도너츠와 발바닥 모양의 풀장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사이 파인애플 나무, 열대성 관목, 녹색 잔디밭이 가지런히 정렬해 있고요. 아이들과 청년들, 부모들의 표정이 여간 싱그럽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바로 손에 잡힐 듯합니다.

시야 좀 더 멀리엔 푸르디푸른 바다가 탁 트여 있습니다. 이곳 파도는 침대시트를 살짝 들어올리는 듯 하얗고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바다엔 제트보트가 달리고 거기 매달린 80m 높이의 패러세일링이 새처럼 자유롭게 습니다. 시야의 가장 먼 단계는 수평선 위 창공과 흰구름입니다. 세부의 하늘은 아득하게 청명합니다. 밑도 있는 구름은 갖가지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야는 이처럼 거실→풀장→바다→하늘 네 단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혹은 하늘→바다→풀장→거실로 축소되기도 했지요. 한 곳에 머물면서 동시에 네 개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면서 기묘한 흥분감이 번졌습니다. 육체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고정돼 있지만 정신의 감흥만큼은 네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떠다니고 있다는 인식인 것이죠.

휴가여행을 떠나기 전 날 저는 <인셉션>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고정된 현실의 한 인간이 꿈과 무의식 속에 있는 세 종류의 세계를 떠다니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의 맨 바다층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의 실제적인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설정입니다. 휴양도시 세부와 영화 <인셉션>의 경험에서 저는 삶을 여러 층의 세계로 보는 방식의 감흥을 느꼈습니다.

'때론 비현실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떤 느낌이 현실에서 중요하고 절박한 실체가 될 수 있다', '때론 현실로써 중요하고 절박한 어떤 것이 다른 층의 세계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피터 슈워츠라는 경영전략가는 80년대 말 석유회사 쉘에서 일할 때 소련의 몰락을 예견하고 그 나라의 풍부한 원유가 서방세계에 흘러넘쳐 '저유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을 경영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쉘은 당시 일약 원유 메이저의 넘버원 기업이 됩니다.

피터 슈워츠는 이런 경험들을 다룬 <미래를 읽는 기술(The art of long view)>이란 책에서 '새벽에 눈을 뜨면 흠어져 버리는 꿈을 매일같이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꿈의 세계가 건네는 무의식의 신호들을 잡아채는 연습을 통해 현실을 예민하게 통찰하는 영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감은 비현실과 현실을 연결하는 뇌의 작용입니다. 영감은 비현실의 세계에서 형성된 기묘한 것들을 응시해 현실로 퍼 올리는 두레박 같은 겁니다. 반대로 현실에서 아주 중요하고 절박하게 보인 일들이 다른 층의 세계로 시야 이동을 하게 되면 그저 그런 일로 전환하곤 합니다. 이런 묘미는 몸에 힘을 빼고 의식의 스위치를 꺼놓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김재미**

2009년 9월부터 집필해주셨던 정목일 수필가의 칼럼이 지난 7·8월호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호부터 전영기 중앙 SUNDAY 편집국장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신 정목일 수필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기국장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지난 24년간 주로 정치부에 몸담았으며 사회부, 기획취재부 등에서도 일했다. 정치부 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성공한 권력>, <2007년 대선승자는 누구인가>, <이명박 핵심 인맥 핵심 브레인> 등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프리마돈나 마야 프리셋츠카야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국립 러시아안 클래식 발레단 내한공연

2010.9.25~26
세종문화회관대극장



티켓문의 02.737-6614  인터파크 1544-1555
(VIP석 150,000원 / R석 120,000원 /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 B석 40,000원)

1회 3시, 2회 7시 { 9월 25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9월 26일 [백조의 호수]

*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20% 할인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주최  한라친선협회, 아우라코레아 주관  인간개발연구원, 아우라코레아
후원 주한러시아대사관, 신나라 뮤직, 루다이브엑스,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문화유산 국민신탁



- Telecom

텔레콤이란
이름부터
버리겠습니다
텔레콤의
한계를 깨고
어제의
텔레콤을
넘겠습니다

+You

당신에게
무한한 가치를
드리기 위하여
LG유플러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통합LG텔레콤이 LG유플러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